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學位論文

쿠빌라이 칸의 3차 日本遠征 計劃과  
高麗·日本の 對應



2014年 8月

釜慶大學校大學院

史學科

Tuvshin Enkhtungalag

文學碩士學位論文

쿠빌라이 칸의 3차 日本遠征 計劃과  
高麗·日本の 對應

지도교수 李根雨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年 8月

釜慶大學校大學院

史學科

Tuvshin Enkhtungalag

Tuvshin Enkhtungalag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8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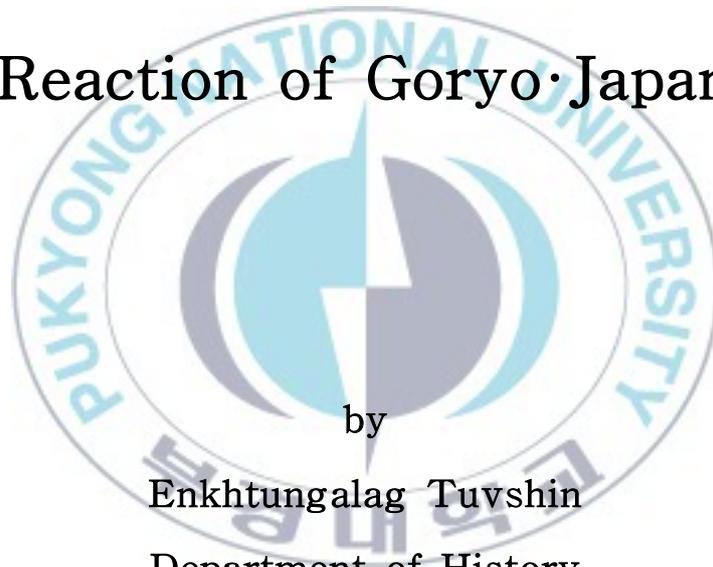
위원장 문학박사 신명호 (인)

위 원 문학박사 박화진 (인)

위 원 문학박사 이근우 (인)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History

The Third Attempt to Attack  
Japan by Kublai Khan and the  
Reaction of Goryo·Japan



by

Enkhtungalag Tuvshin

Departmen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ugust 2014

The Third Attempt to Attack  
Japan by Kublai Khan and the  
Reaction of Goryeo·Japan  
쿠빌라이 칸의 3차 日本遠征 計劃과

高麗·日本の 對應

Advisor: Prof. Kun Woo Rhee

by

Enkhtungalag Tuvshi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History

in Departmen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ugust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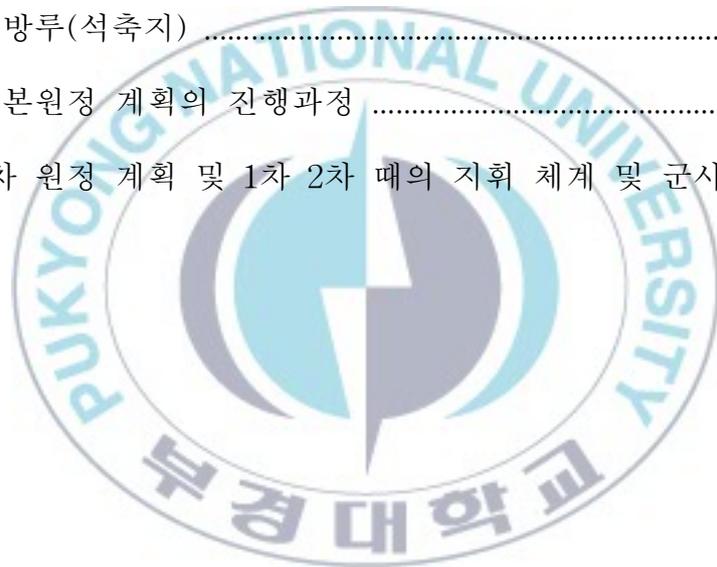
# 목 차

Abstract

<b>I. 서론</b> .....	1
1. 연구목적 및 연구사 .....	1
<b>II. 쿠빌라이 칸의 일본원정</b> .....	9
1. 1차 일본원정 .....	9
2. 2차 일본원정 .....	15
<b>III. 쿠빌라이 칸의 3차 일본원정 계획</b> .....	23
1. 원 내부 준비 .....	23
2. 고려의 대응 .....	38
3. 일본의 대응 .....	47
<b>IV. 원정계획의 좌절</b> .....	59
1. 원의 내란과 외정 .....	59
2. 3차 일본원정 계획의 종언 .....	61
<b>V. 맺음말</b> .....	64
<b>참고문헌</b> .....	67

## 표·그림 목차

〈그림1〉 1차 일본원정 세부도 .....	10
〈표1〉 1차 일본원정 체계와 전력 .....	12
〈표2〉 2차 일본원정 체계와 전력 .....	18
〈그림2〉 2차 일본원정 세부도 .....	19
〈그림3〉 방루(석축지) .....	49
〈표3〉 일본원정 계획의 진행과정 .....	52
〈표4〉 3차 원정 계획 및 1차 2차 때의 지휘 체계 및 군사력.....	52



The Third Attempt to Attack Japan by Kublai Khan and the Reaction of  
Goryeo·Japan

Tuvshin Enkhtungalag

Departmen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Until now, there are some discussions about the first and second attempt to attack Japan that is tried by Kubilai. So, there are not many studies about the plan of the third attempt to attack Japan. There may not know about the preparation about the third attempt. Moreover, there are some wrong discussions about the first and second attempt, which is to weaken the military power of the South Sung and Goryeo. Therefore I will discover there action of Goryeo and Japan about the third attempt to attack Japan as regards the first and second attempt.

Immediately after the second attempt, Kubilai made a plan about the third attempt during installing Jimbyon-Manhobu(鎭邊萬戶府) on October, 1281. Since the second attempt, Kubilai tried to make plan of the third attack during 1281-1282, 1284-1285, 1292-1294, but they were frustrated because of the resistance of Vietnam, and the rebellion and circumstance in Yuan Dynasty. In those days Japan tried to send spy to Yuan and Goryeo and to tighten guard.

In 1292, having no plan for a long time, Kubilai tried again to attack Japan. So he made plan for ordering Goryeo again to make warship and to depart at Happa, which was the starting place of the first attempt. However Goryeo was hard to make warships because of lumber shortage. So Chungnyeol king of Goryeo, went to Yuan to propose the postponement of making warship. Just at that moment, Yuan stopped to attack Japan because of the death of Kubilai, and the plan was suspended gradually.

Vassal of Yuan dynasty made petition for attacking Japan to Tumor king of Yuan, the second emperor of Yuan, in 1298. But king of Tumor refused

because it wasn't the time for that. After that, he sent the sovereign's message to give up conquering through military power and to focus the diplomacy.



## 쿠빌라이 칸의 3차 일본원정 계획과 고려·일본의 대응

Tuvshin Enkhtungalag

부경대학교 대학원 인문학과

### 요약

지금까지 몽골과 한국에서는 쿠빌라이 칸이 실행한 일본원정에 대하여 1차, 2차 원정을 둘러싼 문제들만을 논의해 왔다. 따라서 쿠빌라이 칸의 1차, 2차 일본원정 이후에 진행되었던 3차 원정 계획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3차 원정준비를 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거나, 쿠빌라이 칸의 1차, 2차 원정 목적을 옛 남송(南宋)의 군사인 강남지방의 군사와 고려의 군사력(軍事力)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등 잘못된 논의도 있었다. 따라서 본인은 쿠빌라이 칸의 1차, 2차 일본원정과 관련하여 제3차 일본원정(日本遠征) 계획 및 당시 고려·일본의 대응에 대하여 밝혀 보고자 한다.

쿠빌라이 칸은 2차 원정 실패 직후인 1281년 겨울 10월에 다시 일본 정벌을 계획하여 금주(金州: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에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를 설치하며 3차 일본원정을 서둘렀다.

2차 일본 원정 이후 쿠빌라이는 1281-1282년, 1284-1285년, 1292-1294년에 걸쳐 3차 일본원정을 집요하게 기도했었지만 3차 일본원정은 원 내부 각지의 반란, 베트남의 저항 및 몽골제국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계속 좌절되었던 것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도 3차 일본원정을 대비해 원과 고려에 간첩을 보내 정보를 얻는데 힘쓰고 경계 강화 및 방주 설치를 하며 원의 3차 일본침략을 대비하고 있었다.

한 동안 원정계획에서 눈을 돌리고 있었던 쿠빌라이는 원내부가 잠잠해지자 1292년에 재차 일본원정을 단행하고자 하여 다시 고려로 하여금 전함을 만들어 1차 원정 출발지인 합포에서 출발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당시 잇달은 전함으로 이미 고려에서는 목재가 바닥나 있어 전함을 준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때문에 전함을 준비하지 못 하게 되자 충렬왕은 전함 건조의 연기를 건의할 목적으로 원으로 갔는데 마침 쿠빌라이 칸이 사거한 것에 따라 원에서는 일본원정 계획을 중지하자 고려에서는 전함을 중단하였고, 여러 차례 추진되었던 일본원정 계획은 차츰 중지했다.

일본을 군사적으로 정복하려고 기도했었던 쿠빌라이 칸이 사망한 후에는 쿠빌라이 칸의 뒤를 이은 원나라의 제2대 황제 테무르에 대해 1298년에 일본을 정벌할 것을 청했지만, 테무르는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고 말해 신하의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로 1299년에는 일본에 국서를 보내 일본 초유를 시도하면서 일본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버리고 외교교섭 쪽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다.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연구사

몽골 제국의 제5대 대칸 쿠빌라이 칸(忽必烈:Хубилай хаан)은 1260년에 즉위하였다. 이후 1271년 몽골제국(蒙古帝國:Их Монгол улс)의 국호를 대원(大元:Их Юань гүрэн)으로 바꿨다. 쿠빌라이는 즉위 6년 후인 1266년 8월 일본(日本:Япон)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기 위해 원의 사신을 고려를 통해 일본에 파견했다. 한편 일본 조정 측에서는 답신을 보낼 것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싯켄(執權)<sup>1)</sup>이었던 호조 도키무네(北條時宗)<sup>2)</sup>는 이를 거부하고 답신도 보내지 않았다. 이후 쿠빌라이 칸은 몇 차례(1268.1, 1269.3, 1269.9, 1271.9, 1272.5일 모두 6차에 걸쳐)에 걸쳐 사신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는 회답이 없었다. 따라서 쿠빌라이 칸은 1차 1274년, 2차 1281년에 걸쳐 일본원정(日本遠征)을 단행하였다.

이후 쿠빌라이 칸은 다시 3차 일본원정을 계획했다. 1차, 2차 원정은 실제로 이뤄진 것이지만 3차 원정은 이뤄지지 못 하고 계획 상태로 역사 기록 속에서 막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3차 일본원정 계획을 원(元:Юань гү

---

1) 싯켄(執權)은 가마쿠라 막부에서 쇼군을 대신하여 실제 정치를 총괄하던 직책을 말한다. 가마쿠라 막부의 싯켄은 호조 가문이 대대로 계승하였으며, 싯켄 정치는 오직 가마쿠라 시대 (1203년-1333년)에서만 있었고, 헤이안 시대의 섭관 정치와도 구별되는 현상이었다.

2) 호조 도키무네(北條時宗), 1251년-1284년 가마쿠라 막부 제8대 싯켄(執權; 쇼군의 섭정)이다. 5대 싯켄 호조 도키요리의 적장자로 태어나 불과 17세의 나이로 싯켄에 취임하였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원(元)의 공격을 2번이나 받았으며, 항쟁의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다. 1282년 중국에서 무가쿠 소겐(無學祖元) 선사를 초청하고 사찰 엔가쿠지(円覺寺)를 창건하여 일본에 선종이 전파되는 데 공헌하였다.

рэн)·고려(高麗:Гуулин улс) 관계사에 대하여 몽골(蒙古:Монгол улс)과 한국(韓國:Солонгос улс)에서 지금까지 쿠빌라이 칸이 실행한 일본원정(日本遠征)에 관한 논의들은 1차, 2차 일본원정을 둘러싼 문제들만을 다루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논문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원정에 대한 연구는 몽골에서는 1900년도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몽골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구는 단지 1차, 2차 일본원정을 둘러싼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3차 일본원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안 되어 있다.

한국에서 몽골의 일본원정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1958년 이흥식의 「여몽연합군의 동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1차 정벌 경위와 고려의 부담 그리고 2차 정벌에 대해서 다루었다. 즉 1차, 2차 일본원정을 둘러싼 문제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sup>3)</sup>

이어서 1972년의 이은규의 원의 일본정벌, 고려와 원의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1차 일본정벌 계획과 원-고려 관계와 2차 일본정벌 전후의 국제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에 2차 원정 실패 후 쿠빌라이가 원의 강남 지역과 고려에 진변만호부를 두고 군사를 배치하여 일본의 보복을 대비하면서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다고 하면서도 3차 일본원정 계획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마지막에 세조(世祖)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sup>4)</sup>

또는 이영의 「여몽 연합군의 일본침공과 여일관계」라는 연구가 1998년도에 이뤄진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침공의 동기 및 사신 파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일본원정 동기를 이영은 쿠빌라이가 일본의 정치와 법률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일본을 항복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라

3) 이흥식, 「여몽연합군의 동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58.

4) 이은규, 「원(元)의 일본정벌(日本征伐) 고찰(考察), -고려(高麗)와 원(元)의 국제관계(國際關係)를 중심(中心)으로-」, 『호서사학(湖西史學)』 1, 1972.

고 주장하였다.<sup>5)</sup>

이후 2000년도 들어서 남기학의 몽골의 일본 침략과 왜구에 대해 쓴 연구에서는 몽골의 초유와 고려의 대응과 그리고 몽골이 1차, 2차 일본원정을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일본 초유를 시도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2차 이후 진변만호부가 설치되어 일본을 공제(控制)하는 체제가 정비되었다고 하였으나 3차 일본원정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sup>6)</sup>

또한 여원군의 일본침입을 둘러싼 몇 문제들 중에서 1274년 1차 침입을 중심으로만 연구한 윤용혁 교수는 1차 연합군의 병력 규모, 군선 규모에 대한 많은 상이한 주장들을 검토하면서 승조원을 포함한 전체 원정군의 규모가 3만 2천여 명이었으리라는 점, 원정군의 군선은 9백척에 미달하였고 특히 ‘대선 3백 척’은 실제로는 절반 미만이었다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연합군의 군수 보급의 한계와도 관련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연합군 조기 철수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았다. 1차 침입 때의 대풍우는 연합군에 큰 피해를 미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것은 이미 철군의 단계에서의 일이어서 연합군의 조기 철군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sup>7)</sup>

또는 원 간섭기와 관련해서 이정신은 원종·충렬왕의 정치적 행적 -김방경의 삼별초 정벌, 일본원정을 중심으로 -라는 연구를 2008년도에 발표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고려가 일본정벌에 가담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 선박, 군량미 군사를 고려가 조달해야 한다는 점 외에 몽고의 목표가 일본보다는 고려의 군사력을 약화시켜 완전히 굴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는 일본원정은 몽골의 입장에서는 이기면

5) 이영, 「여몽 연합군의 일본침공과 여일관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 연구 논문, 1998.

6) 남기학, 「중세 고려, 일본 관계의 쟁점 -몽골의 일본 침략과 왜구-」, 『日本歴史研究』, 일본사학회, 2003.

7) 윤용혁, 「여원군의 일본침입을 둘러싼 몇 문제 -1274년 1차 침입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2005.

좋고, 진다면 체면이 좀 깎이지만 고려군의 전력(戰力)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나쁠 것이 없었다고 하며 결론적으로 3차 일본원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 일본원정을 오로지 고려의 전력을 약화시키려고 2번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sup>8)</sup>

또는 이재범은 여원연합군의 일본원정 경로에 대한 고찰이라는 연구를 2009년도에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1차, 2차 여원연합군의 기동로 및 전투지역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여원연합군은 1차, 2차의 모든 원정에서 일본 영토에 상륙하여 상당한 보병전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2차 일본원정 이후의 상황 및 3차 일본원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sup>9)</sup>

이어서 최근 들어서 남기학 교수의 「몽골의 일본 침략 -연구사적 고찰과 교과서 비판」은 몽골의 일본 침략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일본과 한국에서의 주요 연구동향을 살피고 일본의 현행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관련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sup>10)</sup>

한편 중국에서는 일본원정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2002년도 설되는 쿠빌라이 시대 원(元)·일(日) 관계와 고려왕조의 태도에 대해 정리했다. 설되는 쿠빌라이 시기 원일관계와 고려왕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고려는 1차 일본원정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쿠빌라이 칸의 명령을 따르기만 했었지만 2차 원정 당시는 일본원정에 충렬왕이 주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sup>11)</sup>

이어서 곽휘가 쓴 「쿠빌라이 칸의 일본정벌」이라는 논문에서는 일본원

8) 이정신, 「원 간섭기 원종·충렬왕의 정치적 행적 -김방경의 삼별초 정벌, 일본 원정을 중심으로 -」, 『한국인문사연구』 제10호, 2008.

9) 이재범, 「여원연합군의 일본원정 경로에 대한 고찰」, 국사연구 제127집, 2009.

10) 남기학, 「몽골의 일본 침략 -연구사적 고찰과 교과서 비판」, 한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Vol.19 No.-, 2011.

11) 薛磊, 「忽必烈時期元日關係中,高麗王朝的態度」, 『內蒙古大學學報』, 2002年.

정은 쿠빌라이 전에도 중국에서 실행했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며 쿠빌라이가 실패함으로 일본이 자신감이 생겨 나중에는 대륙으로 진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또는 조운고왜의 「원세조 쿠빌라이의 두 차례 일본원정과 고려의 태도」라는 연구에서는 쿠빌라이가 즉위 후 일본과 통교하려 해서 몇 차례 사신을 파견했지만 일본측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이에 쿠빌라이는 무력으로 일본을 정복하려 하였으며, 1274년과 1281년에 두 차례 군대를 파견했는데 태풍을 만나 막대한 손실을 입고 돌아옴으로써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고려의 태도에 대해서는 1차 일본원정 당시 원정 준비에 부득이 응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2차 원정 당시에는 일본원정에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며 각각 달랐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sup>13)</sup>

2010년도에 황비가 쓴 「쿠빌라이의 일본전쟁」이라는 논문에서는 1차, 2차 일본 원정을 둘러싼 문제들 및 1차, 2차 일본원정 후 3차 일본원정을 준비했지만 1283년경 강남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 때문에 3차 일본원정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sup>14)</sup>

마지막으로 왕금림이 쿠빌라이 칸의 일본원정 및 실패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실패 원인을 원 내 반란 및 다얀(乃顔:내안:Наян)과 당시 베트남의 문제로 원정을 미루다 결국에는 원정에 나서 약탈을 하는 도중 태풍으로 피해를 많이 입어 군함이 많이 파손되므로 물러나면서 실패했다고 한다. 따라서 1차, 2차 일본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3차 일본원정 계획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sup>15)</sup>

12) 郭輝, 「忽必烈征伐日本」, 当代軍事文摘, 2005年.

13) 조운고왜(烏云高娃), 「元世祖忽必烈兩次征日本及高麗의 태도」, 『역사와 세계』 Vol.- No.36, 2009.

14) 黃飛, 「元朝忽必烈 對日本的戰爭」 河北理工大學學報, 2010年

15) 王金林, 「元朝忽必烈兩次東征日本及其失敗原因」, 『東北亞學刊』, 2012年

한편 일본에서는 3차 일본원정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공격을 받고 있었던 나라로서 원나라가 또 공격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3차 일본원정 좌절 끝까지 일본원정에 대비해야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일본원정에 대한 연구를 몽골, 한국, 중국보다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연구 성과도 풍부하다. 일본에서의 주요 연구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6)</sup>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가 1931년에 쓴 『원구의 신연구』라는 연구는 역사의 신성시 국가주의의 광풍 속에서 사실(史實)로서의 몽골의 일본 침략 그 자체를 직시한 연구이다. 연구는 몽골·고려 축을 중심으로 중국대륙과 한반도의 정세를 면밀히 추적한 성과로서 현재까지도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sup>17)</sup>

또한 일본과 남송·고려·원의 교섭사 연구로서 모리 가쓰미(森克己)<sup>18)</sup>, 아오야마 고스케(青山公亮)<sup>19)</sup>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전전(戰前) 자신들의 연구를 집대성한 것으로, 몽골의 침략을 전후한 시기의 대외교섭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실을 제공한다.

이어서 하타다 다카시(旗田巍)<sup>20)</sup>의 특기할 연구로는, 몽골 지배하의 여러 아시아 민족의 저항에 주목하고 그것이 몽골의 일본 침략 계획을 좌절시킨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몽골에 대한 대응을 일국사(一國史)의 틀에서 바라보았던 종래 연구에 참신한 자극을 주었다. 한편

---

16) 일본쪽의 연구사 정리는 주로 남기학의 「몽골의 일본 침략 -연구사적 고찰과 교과서 비판」에 의지하였다.

17) 池内宏, 『元寇の新研究』, 東洋文庫, 1931.

18) 森克己, 『日宋貿易の研究』, 國立書院, 1948.

森克己, 『新訂 日宋貿易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19) 青山公亮, 「日麗交渉史の研究」, 『明治大學文學部研究報告』, 1955.

20) 旗田巍, 『元寇 蒙古帝國の内部事情』, 中央公論社, 1965.

가와조에 쇼니(川添昭二)<sup>21)</sup>는 기존 대외교섭사의 틀을 넘어서 폭넓게 문화사적으로 몽골의 침략 사건의 의의를 추구하였다.

또는 고미 후미히코(五味文彦)<sup>22)</sup> 일본 정치사적 연구의 근년 성과로서 중세 국가사의 전개 속에서 몽골의 침략을 기존 사료의 재해석을 통해 몽골 침략 이후의 정치과정을 새롭게 파악했다. 한편 가이즈 이치로(海津一郎)<sup>23)</sup>·세키 유키히코(關幸彦)<sup>24)</sup>의 사회사적 연구경향에 힘입어 몽골 침략 이후 일본의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논문들도 있다.

최근 들어서 몽골 침략에 대한 연구의 두드러진 특징은 동아시아사 속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의 연구가 한층 다양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2차 침략 이후 일본에 배치된 남송인 포로를 인적(人的) 교류의 차원에서 파악한 에노모토 와타루(榎本渉)<sup>25)</sup>가 있다.

동양사 연구자인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sup>26)</sup>는 몽골과 그 시대에 대한 종래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13·4세기를 세계제국으로서의 ‘몽골의 시대’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일본사 연구가 ‘침략과 저항’의 단순한 도식으로 몽골의 침략을 바라보는 경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사상 보기 드문 동서(東西) 교류 속에서 일본을 조명할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몽골의 일본 침략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몽골, 한국, 중국에서는 3차 일본원정에 대한 논의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해도 과연은 아닐 것 같다.

21) 川添昭二, 「鎌倉時代の對外關係と文物の移入」, 『岩波講座日本歴史』6, 中世2, 1975.

22) 五味文彦, 「執事・執權・得宗」, 石井進編 『中世の人と政治』, 吉川弘文館, 1988.

23) 海津一郎, 『中世の變革と徳政』, 吉川弘文館, 1994.

海津一郎, 『蒙古襲來』, 吉川弘文館, 1998.

24) 關幸彦, 『神風の武士像』, 吉川弘文館, 2001.

25) 榎本渉, 「初期日元貿易と人的交流」, 『宋代史研究會研究報告』8, 汲古書院, 2006.

26) 杉山正明, 『クビライの挑戦 モンゴル海上王國への道』, 朝日新聞社, 1995.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결과로 3차 원정준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식이 부족하고, 쿠빌라이 칸의 1차, 2차 원정 목적을 옛 남송(南宋:Өмнө д Сүн улс)의 군사인 강남지방의 군사와 고려의 군사력(軍事力)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등 잘못된 논의도 있었다. 따라서 본인은 쿠빌라이 칸(忽必烈:Хубилай хаан)의 1차, 2차 일본원정과 관련하여 제3차 일본원정(日本遠征) 계획 및 당시 고려·일본의 대응에 대한 연구에 시도해 보고자 했다.

몽골은 유목생활(遊牧生活)을 해왔기 때문에 기록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당시 고려는 한자(漢字) 기록문화권(記錄文化圈) 나라인데다가 원(元)제국 시대에 원의 부마국(駙馬國)으로서 일본원정에 앞장서서 몽골을 도왔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물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인도 주로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 및 원사(元史)·고려사(高麗史)·일본(日本)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할 생각이다.

연구가 마무리되면 한국과 몽골의 원-고려 관계 및 쿠빌라이 칸의 3차 일본원정계획에 대한 연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논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II. 쿠빌라이 칸의 일본원정

### 1. 1차 일본원정

1266년 당시 쿠빌라이 칸(忽必烈:Хубилай хаан)은 중국대륙(中國大陸)에서 남송(南宋:Өмнөд Сүн ул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을 복속시킨 상태였다. 그런데 당시 동북아(東北亞)에서 일본(日本:Япон)만이 남송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무역(貿易)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류는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미묘한 자극이었기 때문에 남송(南宋:Өмнөд Сүн улс) 정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외교 교섭이 필요했다.

따라서 쿠빌라이 칸은 1차, 2차 일본원정을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외교 교섭을 시도했었다. 1274년 1차 일본원정 이전 원(元:Юань гүрэн)은 몇 차례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는 이를 거부하고 결사 항전을 천명하였다. 사신 파견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쿠빌라이 칸은 1272년 고려에 일본원정 준비를 명했다. 또한 쿠빌라이 칸의 신뢰를 얻고 있던 홍다구(洪茶丘)<sup>27)</sup>를 조선 감독관(監督官)으로 임명하여 일본정벌에 소요되는 전선 건조와 사공 징집을 독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본원정 준비 도중에도 쿠빌라이는 사신을 파견했었지만 여섯 번째의 사신이 일본(日本:Япон)에서 빈손으로 돌아오자 1274년 쿠빌라이는 일본원정(日本遠征)을 서둘렀다.

27) 『高麗史』 권130, 열전43, 반역, 흥복원전. 홍다구(洪茶丘);(1244~1291)는 고려인으로 몽골에 귀화한 무장이다. 본명은 준기(俊奇), 다구는 아명(兒名), 몽골말로 찰구이(察球爾)라고 하였다.



흔(金忻:김수金綬)<sup>30</sup>과 지병마사 임개(任愷)를 그 부사(副使)로 삼았다. 또 추밀원부사 김신(金旿)<sup>31</sup>을 좌군사(左軍使)로, 위득유(韋得儒)와 지병마사 손세정(孫世貞)을 그 부사로 삼았으며, 상장군 김문비(金文庇)를 우군사(右軍使)로, 나유(羅裕)<sup>32</sup>·박보(朴保)<sup>33</sup>와 지병마사 반부(潘阜)를 그 부사로 삼아 이 3군을 3익군(翼軍)이라고 하여 일본원정군의 지휘 체계를 정했다.<sup>34</sup>

원 고려 연합군의 1차 일본원정 체계와 전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휘 체계	
1	일본정도도원수 헌두
2	동정부원수 홍다구·유복형
3	고려군 중군 도독사(都督使) 김방경
4	좌군사(左軍使) 김신(金旿)
5	우군사(右軍使) 김문비(金文庇)

군사력	
1	몽한군(蒙漢軍) 2만 5천 명

30) 『高麗史』, 김흔(金忻), (1251-1309) 은 고려 후기의 무신이다. 1272년 아버지 방경(方慶)을 따라 탐라(耽羅)에 가서 삼별초(三別抄)를 토벌, 대장군에서 사재경(司宰卿)으로 전직, 또한 원나라의 정동군(征東軍)에 편입, 일본(日本) 정벌에 종군 후 진주 목사(晋州牧使)를 지내고 1279년(충렬왕 5) 툴루게(秀魯花)로서 원나라에 갔다. 후에 아버지의 직을 물려받아 금호부(金虎符)를 받았으며, 이어 진국 상장군(鎭國上將軍)을 거쳐 첨의참리(僉議參理)에 올랐다. 1290년(충렬왕 16)에 합단(哈丹)이 고려에 침입한 시기 적군을 물리친 그 공으로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가 되었다. 또는 이후 판삼사사에서 지도첨의사사가 되었다던 인물이다.

31) 『두산백과』 김신(金旿), (?-1274), 고려시대의 무신이다.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할 때 이키섬, 쓰시마 섬을 토벌했고 규슈 지쿠젠 해안에 상륙하여 많은 적을 살해했으나 큰 폭풍우로 진함의 대부분이 침몰해 익사했다.

32) 『두산백과』 (?-1292), 고려시대의 무장이다. 진도에서 삼별초를 진압했고 원이 일본을 정벌할 때 원장 홀돈 휘하에서 종군했다. 합단(哈丹)이 동북변경을 침범했을 때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33) 『두산백과』 (?-?), 고려 후기의 무신이다. 1274년 원나라가 여몽연합군을 조직하여 일본에 대한 공격 준비를 할 때 대장군으로 일본 정벌에 필요한 진함의 건조를 지휘하였다. 이어 여몽연합군이 일본 정벌을 위해 출병하였을 때 우군의 지병마사가 되어 참전하였다.

34) 『高麗史』 권104 열전17, 김방경(金方慶)

2	고려군	8천 명
3	수군	6천 7백 명
4	전함	대소 9백 척

따라서 원 고려 연합군의 전체 수는 약 4만 명 정도였다는 것이 보인다. 이에 1차 일본원정군의 목적은 일본의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274년 10월 3일 합포(合浦:경남 마산)에서 출발한 연합군은 10월 5일 대마도(對馬島:쓰시마)의 좌수포(佐須浦)<sup>35</sup>에 도착했다. 대마도에 들어간 힌두(忽敦:忻都:Шинду)는 바로 상륙해 많은 적군을 격살했다. 이어서 원정군은 이즈하라(嚴原)를 비롯한 대마도의 중요 지역을 점령하고, 섬 중앙에 있는 아소만에 집결해 열흘 가까이 머무르며 약탈을 자행한다. 아소만에서 전열을 재정비한 원정군은 일기도(壹岐島:이키시마)로 향하여 일기도의 북부 해안 승본(勝本)에 10월 14일에 도착했다. 섬의 중심은 지금의 아시베 항구에 있는 후나가쿠성이었는데, 방어에 나선 성주가 시간이 흐를수록 밀리자 결국 자결하였고 성은 함락되었다.<sup>36</sup>

원정군은 일기도와 그의 주변 섬을 장악하고 나서 10월 17일에 규슈 서해안의 응도(鷹島:다카시마)와 당진(唐津:가라쓰) 부근에 도착해 일부는 상륙을 감행했다. 이어서 원정군은 박다(博多:하카다)로 향해 10월 19일 하카다만의 금진(今津:이마쓰)에 전함을 접안시키고 우선 교두보를 확보했다.<sup>37</sup> 연합군은 당시 규슈 지방의 정치 군사 중심지로 지방 관부가 있는 태재부(太宰府:다자이후)를 장악할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우선 태재부로 들어가는 관문인 하카다(博多)<sup>38</sup>만에서 원정군은 세 방면으로

35) 좌수포(佐須浦)은 지금의 고모다 해안이다.

36) 이승한, 『쿠빌라이칸의 일본 원정과 충렬왕』, 푸른역사, 2009, 196쪽.

37) 앞의 글.

38) 하카다는 현재 후쿠오카시의 한 구로 편입되어 있다.

상륙을 전개했다.

당진(唐津:가라쓰)쪽에서 먼저 상륙해서 성을 함락시킨 후 원정군은 하카다만에 상륙하려는 원정군을 내륙 쪽에서 엄호하기 위해 동진해 조원산(祖原山)을 목표로 해서 진격했다.

한편 김방경이 이끄는 고려군은 10월 20일 삼랑포(三郎浦)<sup>39</sup>에 상륙했다. 이어서 원정군은 여기서 조원산을 점령한 원정군과 합세해 하카다만의 상륙 작전을 엄호하는 양동작전을 벌려 큰 저항을 받기는 했지만 연합군은 상륙에 성공했다.

연합군은 상륙을 계속하여 적관(赤坂:아카사카)과 백도원(百道原:모모치바라)에서 모두 승전을 거두었다. 원정군은 또 2개의 부대로 나뉘어져 일부는 하코자키(箱崎)에 상륙하고 다른 원정군은 지금의 후쿠오카(福岡) 중심부에 상륙해서 일본군의 저항을 제압했다. 이러한 원정군의 승리로 연안 지역인 하카다는 원정군에게 장악되었다.

일본 측 기록인 『팔번우동훈(八幡愚童訓)』에 나타난 당시의 전투 상황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몽골은 큰북과 징을 치며 전투 개시를 알렸는데 그 소리가 엄청났다. 이 소리에 놀란 일본 말들이 이리저리 날뛰다가 적의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몽골군의 화살은 짧았지만 화살촉에 독을 발라 맞으면 중상을 입었다. 몽골군 수백 명이 대오를 정렬해 화살을 비 오듯 쏘는 데다 창이 길고 갑옷도 빈틈이 없었다. 그들은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있다가 적이 공격해 오면 중앙을 활짝 열어 안으로 몰아넣은 다음 양쪽에서 포위 공격했다. 갑옷은 가볍고 말도 잘 탔으며 힘도 강했다. 또한 용맹하기 짝이 없었고 임기응변의 진퇴에 능했다.

---

39) 지금의 송포(마쓰우라)

적장은 고지에 올라 큰북을 쳐서 군사를 자유자재로 부렸다. 특히 물러날 때는 철포로 철환을 발사했다. 발사하기만 하면 사방에 화염과 연기가 치솟아 주위를 모두 덮어 버렸다. 또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sup>40)</sup>

이 기록을 통해 원정군의 공격으로 일본의 방어에 나선 군사가 완전히 제압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하코자키(箱崎驛) 지역마저 원정군에 뚫리자 일본군은 태재부(太宰府:다자이후)의 폭 60m 깊이 4m의 해자(垓字)를 설치한 최후 방어선인 미즈키(水城)로 퇴각했다. 이곳을 돌파하면 태재부의 함락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원정군은 곧바로 태재부로 진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유복형(劉復亨)이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먼저 함선으로 퇴각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원정군은 전투를 계속하여 태재부로 진격해 들어간 후 태재부 가까이에서 일전일퇴가 거듭되었지만 전투는 진전이 없이 대치 상태가 되었다. 여기에 날이 저물면서 원정대의 공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둔해졌으며 결국 원정군의 공격이 중단되었다.

한편 원정군(遠征軍) 상대인 일본군(日本軍)의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공격하는 원정군보다 많아지자 이 상황을 파악한 원정군은 공격을 풀고 1274년 10월 20일 밤 해산해 정박한 배로 귀환했다. 하지만 때마침 밤에 폭풍우(暴風雨)가 몰아쳐 많은 전함이 바위에 부딪쳐 부서졌고 많은 군사들이 바다 속에 떨어져 익사하였다. 이때 고려군 좌군을 지휘한 김신(金旻)도 물에 빠져 익사했다.

1274년 11월 6일 태풍(颱風)은 지나갔지만 원정군은 전투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합포(合浦:경남 마산)로 철수를 시작했다. 합포로

---

40)이승한, 『쿠빌라이칸의 일본 원정과 충렬왕』, 푸른역사, 2009, 199-200쪽.

귀환하지 못한 군사가 13,500명이었다.

또는 1차 일본원정이 벌어진 해인 1274년 당시 원(元)나라가 남송의 방어체제를 해제하고 남송 본토에 본격적으로 침공하려는 시기에 해당한다.<sup>41)</sup> 따라서 1차 일본 침략은 실은 같은 해에 일제히 개시되었던 남송에 대한 전면(全面) 진공작전(進攻作戰)의 일환이었다. 즉 1차 일본원정 목적은 일본의 군사적 정복이 아니고 남송에 대한 총공격의 측면 작전으로서 남송과 일본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무력시위(武力示威) 내지 무력정찰(武力偵察)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2)</sup>

## 1. 2차 일본원정

1차 일본원정 다음해인 1275년 1월 원정군(遠征軍)을 지휘한 헌두(忽敦:忻都), 홍다구(洪茶丘), 유복형(劉復亨) 등은 원으로 돌아가 전황을 보고했다. 그런데 이들은 패배하고 돌아왔음에도 쿠빌라이 칸은 그들에게 상을 주었다.<sup>43)</sup> 이렇게 보면 당시 몽골의 목적은 남송이었기 때문에 1차 일본원정으로 쿠빌라이는 남송과 일본의 무역의 중심지인 하카다를 쓸어버린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것 같다.

이후 쿠빌라이는 남송정벌을 단행하여 1276년에 임안이 함락되고 당시 갓 5세였던 황제 공종(恭宗)이 포로로 잡힘으로써 멸망했다. 이후 문천상

41) 고명수, 「쿠빌라이 정부의 교통·통상 진흥 정책에 관한 연구-소위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의 성립조건 형성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2010, 102쪽.

42) 南基鶴, 「蒙古의 日本 侵略과 日本의 對應-高麗와 日本의 관계에 유의하여-」, 『몽골의 고려·일본 침공과 한일관계』, 198쪽.

43) 이승한, 『쿠빌라이칸의 일본 원정과 충렬왕』 2009, 202쪽

(文天祥) 등 잔여 세력이 남해 일대를 전전하며 저항을 계속했지만 1279년에 애산(厓山) 전투에 패배하여 육수부(陸秀夫)가 당시 8세였던 황제를 업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음으로써 남송의 152년의 역사를 완전히 끝나고 멸망했다.<sup>44)</sup>

이러므로 동아시아에서 원의 위세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뿐이었다. 따라서 쿠빌라이 칸의 요구를 거절한 일본의 항복이 원의 2차 일본원정의 목적이 된 것이다.

앞서 남송이 멸망하기 전인 1275년 3월, 원에서는 일본을 회유하기 위해 사신 두 명을 다시 보낸 적이 있다. 이후 1276년 남송이 항복한 뒤에도 쿠빌라이는 일본원정을 서두르지 않고 사신을 파견한 것을 보면 일본이 스스로 항복할 것을 기다렸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다가 일본행 사신이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자, 1279년 2월 쿠빌라이는 강회(敕揚州:척양주)·호남(湖南)·강서(贛州:공주)·복건(泉州:천주) 등 남송 지역 4 곳에 전함(戰艦) 6백 척, 고려에는 그 해 6월 9백 척의 전함 건조 명령이 내려왔다.<sup>45)</sup>

이 무렵 원에서는 범문호(范文虎)<sup>46)</sup>라는 남송의 항복한 무장이 등장해 일본원정(日本遠征) 문제를 주도하기 시작해 쿠빌라이 칸(忽必烈:Хубилай хаан)에게 일본 승리를 동반시켜 다시 일본에 사신을 보내 회유해 보자고 건의했다. 쿠빌라이는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사신을 보내지만, 이들을

44) 이상각, 『열정과 자존의 오백년 고려사』, 들녘, 2010, 345쪽.

45) 『元史』 권10, 본기10, 世祖7年, 至元 16年 春正月己酉朔 “甲申, 平章阿里伯乞行中書省檢覈行御史臺文案, 且請行臺呈行省, 比御史臺呈中書省例, 從之. 以征日本, 敕揚州, 湖南, 贛州, 泉州 四省造戰船六百艘.”

『高麗史』 忠烈王 5年 6月, “辛丑 盧英與醫二人, 還自元, 東征元帥府承省旨, 令造戰艦九百艘.”

46) 『新元史』 권177, 열전74, 범문호전(范文虎傳). “이정(李庭)은 남송(南宋) 출신으로 지원(至元) 12년(1275) 2월 강남(江南)에서 몽고군에 항복하여 바안(伯顔)의 휘하에서 남송군의 회유 및 정토(征討)에 앞장서다가 참지정사(參知政事)·좌승(左丞)을 지내고 우승(右丞)에 올라 일본 정벌에 참여하게 되었다.”

파견한 직후, 이전에 파견한 사신단 중 4명만 고려로 겨우 도망쳐 와 일본에서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사신 피살 소식을 접하기 직전에 범문호의 요청으로 보낸 사신마저도 하카다에서 모두 참수되고 만 것이다.

일본행 사신이 피살된 상황이라든가 이미 2차 원정은 계획되어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끝나 일본원정(日本遠征)을 실시할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후 1280년 9월에 쿠빌라이 칸은 고려에 “힌두(忽敦·忻都:Шинду)·홍대구(洪茶丘)와 우승(右丞) 범문호(范文虎) 및 좌승(左丞) 이정(李庭)<sup>47</sup>)에게 일본 정벌을 위해 설치한 행중서성(行中書省)의 일을 맡겼다. 또한 즉시 군마(軍馬) 조달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 고려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비축군량·전함·뱃사공·선원 등 작전에 필요한 일체의 인원 및 물자를 지시대로 조사해 공문을 보내 범규에 맞게 준비해 두었다가 주의해 사용함으로써 일이 다퉈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sup>48</sup>)”라는 명령을 내려 장차 일본원정에 동원하려고 했다.

1280년 12월에는 쿠빌라이 칸이 충렬왕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중서좌승상(中書左丞相)·행중서성사(行中書省事)로 책봉하여 아탑해(阿塔海:Адхай)와 같이 일본원정의 중서우승상으로 삼았다. 또 김방경(金方慶)을 관령고려군도원수(管領高麗軍都元帥)로, 박구(朴球)와 김주정(金周鼎)을 소용대장군(召勇大將軍)·좌우부도통(左右副都統)으로 조인규(趙仁規)를 선

47) 『元史』 권162, 열전40, 이정전(李庭傳). “이정(?~1304) : 금(金)나라 출신으로 몽골에 항복하여 남송(南宋) 정벌에 공을 세워 신군만호(新軍萬戶)가 되었으며, 복건행성(福建行省)의 참지정사(參知政事)·선위사(宣慰使) 등이 되어 주로 강남 지역에서 활약하다가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48) 『高麗史』 忠烈王 6年 9月, “奉聖旨, 委忻都·茶丘·范右丞·李左丞, 征收日本行中書省事, 卽目軍馬調度, 據本國見管, 糧儲船隻梢工水手, 一切軍須, 請照驗行下合屬, 如法準備, 聽候區用, 勿值臨時失誤.”

무장군(宣武將軍)으로 임명하여 2차 일본원정 지휘 체계를 결정했다.<sup>49)</sup>

이렇게 원정준비가 완료되자 1281년 2월 김방경(金方慶)과 만호 박구(朴球)·김주정(金周鼎)이 군사를 거느리고 합포(合浦)로 향했다.

원 고려 연합군의 2차 일본원정 체계와 전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휘 체계		
1	중서우승상	아담해(阿塔海:Адхай)·충렬왕
2	중서우승	혼도·홍다구·범문호
3	참지정사	이정·장희
4	고려군 도원수	김방경
5	좌우부원수	박구·김주정

군사력		
1	연합군	4만 명
2	고려군	전함 9백 척 · 정군 1만 명·수군 1만 5천 명
3	강남군	전함 3천 5백 척·군사 10만 명

2차 일본원정에는 힌두(忽敦:忻都:Шинду)와 홍다구(洪茶丘)는 몽골(蒙古)·고려(高麗)·한족(漢族) 연합군 4만 명을 거느리고 합포현(合浦縣)에서 먼저 출발하고, 범문호(范文虎)와 이정(李庭)은 옛 남송군(蠻軍) 10만 명을 거느리고 강남(江南)에서 출발해 일본(日本:Япон) 일기도(一岐島:이키)에서 양군이 합류한 다음 곧장 연합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49) 『高麗史』 忠烈王 6年 12月, “帝冊王爲開府儀同三司中書左丞相行中書省事, 賜印信. 又以金方慶爲中奉大夫管領高麗軍都元帥, 知密直司事朴球·金周鼎爲召勇大將軍左右副都統, 並賜虎頭金牌·印信. 趙仁規爲宣武將軍王京斷事官兼脫脫禾孫, 賜金牌·印信, 朴之亮等十人爲武德將軍管軍千戶, 賜金牌及印, 趙拊等十人爲召信校尉管軍總把, 賜銀牌及印, 金仲成等二十人爲忠顯校尉管軍總把.”



〈그림2〉 - 이승한 『쿠빌라이칸의 일본 원정과 충렬왕』 참조.

따라서 1281년 5월 2일 연합군은 합포(合浦)를 출발하여 거제도로 향했다. 한편 강남군은 그 뒤에 출발해 양 원정군은 그해 6월 15일 일기도에서 회합한 후 일본을 공략하기로 결정한 대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남군보다 연합군이 먼저 출발한 것은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2차 연합군은 규모와 작전 면에서도 1차보다 훨씬 커서 전체 전함만 5천 척 가까이 되는 대규모 함대라서 우선 정박할 곳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따라서 정박과 함께 그 전초기지로 생각한 곳은 바로 일기도(一岐島:이키)이다. 그래서 연합군은 먼저 당도해 그 일기도를 장악하고 강남군을 기다려 합류할 계획이었다.

이어서 먼저 출발한 연합군은 5월 21일 대마도(對馬島:쓰시마)의 대명포(大明浦)에 닿아 상륙해 대마도를 장악했다. 5일 안에 대마도를 장악한 연합 원정군은 바로 일기도(一岐島:이키)로 향해 5월 26일에 일기도의 아시베(芦邊)만에 집결했다.

연합군은 일기도를 점령한 후 6월 6일 경 하카다만에 도착했다. 그런데

하카다만은 해안선을 따라 이미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상륙을 감행하기 어려운 곳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이에 하카다만을 향해 온 연합군은 작전을 변경해 하카다만 입구에 있는 동북쪽으로 길게 반도가 나와 있어서 상륙하기 좋은 곳인 지하도(志賀島:시카노시마)를 공략하기로 했다.

지하도에서의 전투는 6월 6일부터 8일 동안 이어졌으며 한편 연합군은 지하도를 공략하는 반면 혼슈(本州) 서쪽 끝에 있는 나가토(長門)에도 전함을 보내 규슈와 혼슈 사이의 시모노세키(下關:하관) 해협을 차단했다. 이것은 지하도에서 교전이 길어지면서 혼슈에서 오는 지원군을 저지하고 새로운 상륙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연합군이 지하도 점령을 포기하고 6월 13일 하카다만에서 물러나서 해전을 통해 바로 본토에 상륙할 작정이었다. 당시 상륙하려는 연합군의 군사력이 부족해 승세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범문호(范文虎)와 이정(李庭)이 이끄는 강남군이 약속 일자인 6월 15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이때가 6월 하순 무렵이었다.<sup>50)</sup>

하지만 그 이유는 총사령관에 임명된 우승상(右丞相)이며 조부 때부터 칭기스 칸에 봉사한 정통 몽골인이었으며 충렬왕과 함께 원정의 총책임자였던 아라한(阿喇罕)이 급한 병에 걸려 사령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쿠빌라이 명령으로 아라한을 대신해 아탑해(阿塔海)가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6월 26일 경 교체되었다. 아탑해도 몽골인으로 쿠빌라이 칸이 황제가 되기 전부터 측근에서 봉사한 인물이다.<sup>51)</sup> 이런 사정으로 인해 강남군의 출발은 늦은 것이었다.

따라서 강남군은 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평호도(平戶市:히라도)로 합류지점을 변경했다. 강남군은 이 소식을 연합군에 알리기 위해 50대의 함

50) 이승한, 『쿠빌라이칸의 일본 원정과 충렬왕』 2009, 287쪽.

51) 앞의 글, 281쪽.

대를 보냈다. 하지만 연락을 하지 못했고, 이후 다시 시도해 양군이 연락이 된 것은 6월 하순이었다.<sup>52)</sup>

당시 혼슈 서쪽 해안에 상륙하려는 연합군 일부는 군사력이 약해 밀고 밀리는 소강상태에 빠져 있었고, 한편 다른 일부의 연합군은 일단 강남군과 합류하기 위해 하카다만에서 물러나 응도(鷹島:다카시마)쪽으로 향했다.

강남군은 그해 6월 말 대마도에 당도하여 7월 초에야 평호도(平戸市:히라도)에 도착했다. 강남군은 평호도에 도착해 전함을 정박해 바로 상륙해서 평호도의 오룡산(五龍山)에 본거지를 마련했다. 따라서 강남군은 연합군과 합류하기 위해 혼도, 홍다구가 싸우고 있는 응도(鷹島:다카시마)와 하카다만 쪽으로 향해 갔다. 이에 혼도와 홍다구도 하카다만 쪽에서 전함을 이끌고 와서 응도 북쪽 근해에서 접선했다. 원정군은 먼저 응도를 공격해 점령하고 다음으로 태재부(太宰府:다자이후)를 공격 목표로 삼았다. 태재부를 공략하려면 하카다만 쪽으로 상륙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2차 원정 당시 일본은 하카다만의 방어체제를 실시해 든든한 성벽까지 쌓아놓았기 때문에 상륙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원정군이 응도 앞바다에 집결했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군 사령부는 하카다만 일대에 있는 전함을 응도 근해로 출동시켰다. 하지만 바다를 시커멓게 덮고 있는 원정군의 함대를 본 일본 전함은 감히 전면전을 엄두로 내지 못했다. 일본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정탐이나 야밤을 통한 기습뿐이었다.

하지만 7월 30일 밤부터 응도(鷹島:다카시마)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풍량은 갈수록 심해져 그 다음 날인 8월 1일에 태풍이 세계 불어와 바다를 뒤덮은 바람에 원정군의 전함 대부분 침몰하면서 수많은 병사들

---

52) 이재범, 「여원연합군의 일본원정 경로에 대한 고찰」, 『국사연구』 제127집, 2009, 218쪽.

이 물에 빠져 익사했다.

태풍으로 만신창이가 된 원정군은 출정과 달리 일사불란하게 회군할 수 없었다. 강남군은 평호도와 그 본토 쪽 대안 비전(肥前) 지역에서 군사를 수습해 귀환하고, 연합군은 응도나 그 연안에서 귀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군과 연합군 그리고 고려군 모두 합포로 귀환했다. 이때가 1281년 8월 중순이었다. 다음 달 강남군과 연합군은 고려를 경유해 북으로 돌아갔다.<sup>53)</sup> 강남군과 연합군의 피해 상황에 대해 『고려사』에는 돌아가지 못한 자가 1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고 『원사』에는 10명에 한, 두명 정도였다고 기록되어있다. 한편 고려군의 피해 상황은 정확히 남아 있는데 19,397명의 70 퍼센트 정도가 살아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2차 일본원정이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로 끝나자 쿠빌라이 칸은 2차 일본원정 직후 바로 제3차 일본원정을 계획했다.

---

53) 이승한 『쿠빌라이칸의 일본 원정과 충렬왕』, 푸른역사, 2009, 293쪽.

## Ⅱ. 쿠빌라이 칸의 3차 일본원정 계획

### 1. 원 내부 준비

#### (가). 고려 정동행중서성의 재설치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은 고려에 설치한 일본행성(日本行省)의 정식 명칭이며 이를 정동행성(征東行省)·정동성(征東省) 등으로도 불렀다. 정동(征東)은 일본 정벌을 뜻하는 것이고, 행중서성(行中書省)은 원의 중앙정부 중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서성(中書省)의 지방과건 기관이라는 의미이다.

먼저 원나라 지방행정 체제하에서의 행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은 『원사』 백관지(百官志) 기록 중 일부이다. 이 자료를 통해 원이 지방을 어떻게 구획하여 통치했었는지 알 수 있다.

行中書省，凡十一，秩從一品，掌國庶務，統郡縣，鎮邊鄙，與都省爲表裡。

國初，有征伐之役，分任軍民之事，皆稱行省，未有定製。中統，至元間，始分立行中書省，因事設官，...每省 丞相一員，從一品。平章二員，從一品。右丞一員，左丞一員，正二品。參知政事二員，從二品，....

河南江北等處行中書省。統有河南十二路，七府。

江浙等處行中書省。統有三十路，一府。

江西等處行中書省。本省統有十八路。

湖廣等處行中書省。統有三十路，三府。

陝西等處行中書省。本省所轄之地，惟陝西四路，五府。

四川等處行中書省. 統有九路, 五府.  
 遼陽等處行中書省. 統有七路, 一府.  
 甘肅等處行中書省. 統有七路, 二州.  
 嶺北等處行中書省. 統有北邊等處.  
 雲南等處行中書省. 統有三十七路, 五府.  
 征東等處行中書省. 治瀋陽, 統有二府, 一司, 五道.<sup>54)</sup>

자료를 통해 당시 원 나라가 전 국토를 정동등처행중서성(征東等處行中書省)을 제외한 10개의 행중서성(行省書省)으로 구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장관(首長)인 승상(丞相)의 경우 품계가 종1품(從一品)에 이르는 고위 관직이었다.

이들 관청 아래에는 노(路)·부(府)·주(州)·현(縣)·사(司)의 지방행정관청을 두었다. 지방행정관청의 수령은 대개 그 지방의 지식인을 임명하였으나 지방행정을 점검하는 정치 감찰관으로 다루가치라는 관직을 두어 반드시 몽골인이나 색목인(色目人)을 임명하였다. 이와 같은 현지 출신 관리에 대한 감시제도는 원나라의 특징이었다.<sup>55)</sup>

구체적으로 어떠했었는지를 예를 들면 요양등처행중서성(遼陽等處行中書省)의 경우를 볼 수 있다.

遼陽等處行中書省, 爲路七, 府一, 屬州十二, 屬縣十.<sup>56)</sup>

요양등처행중서성(遼陽等處行中書省)은 7개 로(路)와 부(府) 1개, 주(州) 12개, 현(縣) 10개를 관장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7개 로(路) 중 요양로(遼

54) 『元史』, 志第41-上, 百官 7, 行中書省.

55) 趙英輝, 「雙城總管府와永寧公 王綽」, 中央文化社, 2004, 12쪽.

56) 『元史』, 志第41-上, 百官 7

陽路)를 예로 들었다.

중국 전체에 지방행정기관으로서 행중서성(行中書省)이 원나라 때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성(省)이라는 행정단위로 남아있다.

이어서 고려에 설치한 일본행성(日本行省)·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에 설치한 행성을 원에서는 특별정동행중서성이라고 한다. 이유는 원내에 있는 중국 전체에 지방행정기관 중 하나가 아니라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특별 기관을 원은 전쟁 준비를 위해 고려, 미얀마 등 4곳에 설치해서 정벌을 준비하였다.

쿠빌라이는 1차 원정 때는 고려에 일본행성을 설치하지 않았다. 1차 원정 이후 2차 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쿠빌라이는 1280년 2차 일본원정을 계기로 해서 고려에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을 처음 설치했다. 1차 때는 없었던 일본행성을 2차 원정 직전에 설치한 것은 2차 일본원정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2차 일본원정(日本遠征)이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끝나자, 1282년 1월에 일단은 일본침공의 사령부였던 「일본행성을 폐지했지만 쿠빌라이 칸(忽必烈:Хубилай хаан)은 일본 침공을 포기하지 않고<sup>57)</sup> 재차 일본 침공을 계획했다. 따라서 제3차 정벌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1283년 1월, 일본침공의 사령부·일본행성을 재설치하였다. 아탑해(阿塔海:Адхай)를 일본행성승상에 임명해 일본재침공의 총사령관으로, 철리첩목아(徹里帖木兒)를 우승, 유국걸(劉國傑)을 좌승에 임명해, 군사를 모아 조선의 지휘를 맡게 해 일본침공을 서둘렀다<sup>58)</sup>.

57) 『元史』卷13 本紀第12 世祖9 至元19年 正月丙寅條, “丙寅, 罷征東行中書省.”

58) 『元史』卷208 列傳第25 外夷1 日本國 “二十年, 命阿塔海爲日本省丞相, 與徹里帖木兒右丞, 劉二拔都兒左丞, 募兵造船, 欲復征日本. 淮西宣慰使昂吉兒上言民勞, 乞寢兵.”

하지만 당시 원내부의 문제들 때문에 1283년 5월에는 일본침공계획을 일단 중지했다. 따라서 고려에 이 소식을 알렸으며 고려는 침공계획이 중지된 것으로 받아들여, 조선 및 조병(調兵)을 중지했다.<sup>59)</sup> 하지만 이때 원정 준비만을 중지하고 일본행성은 폐지하지 않았다.

1283년 6월에는 조인규(趙仁規)가 원나라에서 고려로 돌아왔는데 쿠빌라이 칸은 충렬왕을 정동중서성(征東中書省)의 좌승상(左丞相)으로 책봉하고 부마(駙馬)·고려국왕의 관작은 이전과 같으며 아탑해(阿塔海:Адхай)와 함께 정동행성의 업무를 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달하였다.<sup>60)</sup> 따라서 일본 원정 준비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원의 국내정세나 참파왕국과의 적대관계에 따른 불안정화 때문에, 결국 또 다시 1284년 5월, 쿠빌라이는 일본행성을 폐지하고, 다시 일본침공계획을 중지했다<sup>61)</sup>. 그 후 원 내부 문제가 조용해지자 1285년 10월, 쿠빌라이 칸은 다시 일본침공의 사령부·일본행성을 재설치 했다. 아탑해(阿塔海:Адхай)를 일본행성좌승상, 유국걸(劉國傑)·진암(陳巖)을 좌승, 홍다구(洪茶丘)를 우승에 임명해, 일본침공부대의 지휘를 맡게 했다<sup>62)</sup>.

따라서 1285년 11월, 제3차 일본침공의 작전계획이 발표되어 1286년 8월 이후 일본침공을 실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1286년 1월 원내부의 문제로 쿠빌라이 칸은 계획을 바뀌어 일본침공계획을 중지했다.

그런데 원이 일본 정벌을 잠시 포기한 후인 1287년에도 충렬왕에게 행상서성평장사(行尙書省平章政事)를, 1288년에 정동행상서성좌승상(征東行尙書

59) 『高麗史』忠烈王 9年 5月 己卯 (23日) 條“鄭仁卿等還自元言, 帝寢東征之議, 王命罷修艦調兵等事.”

60) 『高麗史』忠烈王 9年 6月 “癸未 趙仁規還自元, 帝冊王爲征東中書省左丞相, 依前駙馬高麗國王, 命與阿塔海共事.”

61) 『元史』卷13 本紀第13 世祖10 至元21年 5月 壬子條 “拘征東省印.”

62) 『元史』卷13 本紀第13 世祖10 至元22年 10月 癸丑條 “癸丑, 立征東行省, 以阿塔海爲左丞相, 劉國傑, 陳巖并左丞, 洪茶丘右丞, 征日本.”

省左丞相)의 직함을 준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일본행성은 일본 정벌을 위하여 고려에 설치되었던 것이며 원정의 좌절 후에는 일본 방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고려 말까지 70여 년간 고려에 존속된 것이다.

### (나). 진변만호부 설치

2차 원정 실패 직후인 1281년 겨울 10월에 원이 다시 일본정벌을 계획하여 금주(金州: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에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를 설치하고 인후(印侯)<sup>63</sup>를 소용대장군(召勇大將軍) 진변만호로 임명하고 호부(虎符)와 인장을 주었으며, 장순룡(張舜龍)<sup>64</sup>을 선무(宣武) 장군 진변 관군총관(管軍總管)으로 임명하였다<sup>65</sup>.

63) 『高麗史』, 권123, 열전36, 폐행1, “인후(印侯:1250-1311)몽골인으로 1275년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의 종으로 와서 고려에 귀화, 왕의 총애를 받고 중랑장(中郎將)이 되었다. 1278년 장군(將軍)이 되어 원(元)나라에 가서 김방경(金方慶)의 유배를 알리는 등 그 후에도 사신으로서 4차례에 걸쳐 원나라에 다녀왔다. 1281년 소용대장군 진변만호(召勇大將軍鎭邊萬戶) 때는 횡포를 부려 백성들을 괴롭혔다. 1286년 응양군상장군 등을 거쳐 지도첨의(知都僉議)가 되었으며, 1290년 첨의참리(僉議參理) 때 만호(萬戶)로서 합단(哈丹)의 침입을 막았다. 1291년 원나라에서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 다루가치[達魯花赤]에 임명되었으며, 1293년 왕과 공주를 수행, 원나라에 갔다.”

64) 『高麗史』, 권123, 열전36, 폐행1, 장순룡(張舜龍). “장순룡(張舜龍)은 본명 셋개(三哥)였다. 원(元)나라 필도치(必閣赤) 경(卿)의 아들이며 제국대장공주를 따라와 낭장(郎將)이 되고 여러 벼슬을 거쳐 장군에 올라 이름을 순룡으로 고쳤다. 1281년(충렬왕 7) 원나라로부터 선무장군(宣武將軍)·진변관군(鎭邊管軍) 총관에 임명되고, 1292년 밀직사부지사(密直司副知事), 1294년 밀직사동지사를 거쳐 첨의참리(僉議參理)가 되었다. 당시 고려에는 무신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충렬왕 때 사신으로 여러 번 원나라를 왕래하였으나 인후(印侯)·차신(車信) 등과 세력다툼을 하고 호화 사치하였으므로 신망을 얻지 못하였다. 덕수 장씨(德水 張氏)의 시조가 되었다.”

65) 『高麗史』 忠烈王7年 10月 “己亥 元勅, 於本國金州等處, 置鎭邊萬戶府, 以印侯

먼저 원나라 지방행정 체제하에서의 만호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다음은 『원사』 백관지(百官志) 기록 중 일부이다. 이 자료는 원이 지방을 어떻게 구획하여 통치했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만호부(萬戶府)와 만호(萬戶)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諸路 萬戶府(元史, 志第四十一上 百官七)

上萬戶府, 管軍七千之上. 達魯花赤一員, 萬戶一員, 俱正三品, 虎符; 副萬戶一員, 從三品, 虎符.

中萬戶府, 管軍五千之上. 達魯花赤一員, 萬戶一員, 俱從三品, 虎符; 副萬戶一員, 正四品, 金牌.

下萬戶府, 管軍三千之上. 達魯花赤一員, 萬戶一員, 俱從三品, 虎符; 副萬戶一員, 從四品, 金牌. 其官皆世襲, 有功則升之. 每府設經歷一員, 從七品; 知事一員, 從八品; 提控案牘一員. 鎮撫司, 鎮撫二員, 蒙古, 漢人參用. 上萬戶府正五品, 中萬戶府從五品, 俱金牌; 下萬戶府正六品, 銀牌.

上千戶所, 管軍七百之上. 達魯花赤一員, 千戶一員, 俱從四品, 金牌; 副千戶一員, 正五品, 金牌.

中千戶所, 管軍五百之上. 達魯花赤一員, 千戶一員, 俱正五品, 金牌; 副千戶一員, 從五品, 金牌.

下千戶所, 管軍三百之上. 達魯花赤一員, 千戶一員, 俱從五品, 金牌; 副千戶一員, 正六品, 銀牌. 彈壓二員, 蒙古, 漢人參用. 上千戶所從八品, 中下二所正九從九品內銓注.

上百戶所, 百戶二員, 蒙古一員, 漢人一員, 俱從六品, 銀牌.

下百戶所, 百戶一員, 從七品, 銀牌. 66)

---

爲召勇大將軍鎮邊萬戶, 賜虎符及印, 張舜龍爲宣武將軍鎮邊管軍總管.”

이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로(路)에는 만호부(萬戶府)가 설치되어 있었다. 만호부(萬戶府)에는 만호(萬戶)가 그 수장을 맡고 있었다. 품계는 통할하는 민호(民戶)의 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정3품에서 종3품이었다. 또한 만호부(萬戶府)에는 만호 또는 다루가치(達魯花赤) 한 사람을 배치하고 있었다. 만호부(萬戶府)에는 만호 예하에 천호소(千戶所)와 백호소(百戶所)가 있었다.

각 로(路)에는 만호부(萬戶府)와 총관부(總管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각 로(路) 지휘부의 이원화(二元化)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원사』 기록에서는 만호의 담당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다.

세조(世祖)때 관제를 크게 고쳤다. 안으로는 오위(五衛)를 설치하여 숙위제군(宿衛諸軍)을 통할하게 하였다. 각 위(衛)에는 친군도지휘사(親軍都指揮使)를 두었다. 외직에는 만호(萬戶) 예하에 총관(總管)과 천호(千戶)를 두고 천호 예하에 총과(總把)와 백호(百戶)를 두었으며 백호 밑에 탄압(彈壓)을 배치하였다. 추밀원을 설치하여 그들을 통할하게 하였다. 지방에 문제가 생기면 행추밀원(行樞密院)을 설치하였으며 문제가 해결되면 행추밀원(行樞密院)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업무는 도진무사(都鎭撫司)에게 이관시켰으며 행추밀원(行樞密院)의 인원은 행정(行省)에 소속시켰다.

만호(萬戶)·천호(千戶)·백호(百戶)는 상·중·하로 구분하였다. 만호는 금호부(金虎符)를 패용(佩用)하였는데 부(符)의 받침대는 옆드린 호랑이 형상이었다. 머리는 구슬을 박아 만들었는데 구슬이 셋, 둘, 하나 있는 것으로 구별을 두었다. 천호는 금부(金符), 백호는 은

66) 『元史』, 志第41上 百官七.

부(銀符)를 패용하였다.

만호나 천호가 진중(陣中)에서 전사(戰死)하면 그 자손이 습직(襲職)하였으며 병사(病死)하면 1계급 낮추어 습직(襲職)하게 하였다. 총파나 백호가 늙어 죽거나 만호가 타직(他職)으로 이동하게 되면 습직시키지 않았다. 이 법은 곧 폐지하고 뒤에는 관직의 대소(大小)에 관계없이 모두 습직케 하였으나 죄를 저질러 파면된 경우만은 습직시키지 않았다.<sup>67)</sup>

이 자료는 각 로(路)에 총관부와 함께 설치되었던 만호부가 군(軍) 조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행성에는 추밀원(樞密院)이 설치되어 만호부를 통할하였으며 유사시에는 행추밀원(行樞密院)을 설립하여 만호부를 지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만호는 총관과 같은 품계를 가졌지만, 원나라는 만호를 총관의 상위에 위치시킴으로써 군(軍) 우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sup>68)</sup>

따라서 고려에 설치한 진변 만호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해 연안지역에서 왜구의 침략을 방어할 목적으로 1281년에 경상도지역의 금주등처진변만호부(金州等處鎮邊萬戶府)와 당시 합포(合浦)에 주둔하던 원나라 병력이 만호부의 군사력에 충당되어 전라도(全羅道)지역의 전라도진변만호부가 차례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1287년 합포의 원군이 모두 철수하면서 고려군이 이를 대신하였다. 그 뒤 1293년 이전에 금주등처진변만

67) 『元史』, 志第四十六, 兵一, “祖時, 頗修官制, 內立五衛, 以總宿衛諸軍, 衛設親軍都指揮使; 外則萬戶之下置總管, 千戶之下置總把, 百戶之下置彈壓, 立樞密院以總之, 遇方面有警, 則置行樞密院, 事已則廢, 而移都鎮撫司屬行省, 萬戶, 千戶, 百戶分上中下. 萬戶佩金虎符, 符狀爲伏虎形, 首爲明珠, 而有三珠, 二珠 一珠之別. 千戶金符, 百戶銀符. 萬戶, 千戶死陣者, 子孫襲爵, 死病則降一等. 總把, 百戶老死, 萬戶遷他官, 皆不得襲. 是法尋廢, 後無大小, 皆世其官, 獨以罪去者則否.”

68) 趙英輝, “城摠管府와永寧公 王綽” 中央文化社, 2004, 15쪽.

호부는 합포등처진변만호부로 개칭되었다.

합포등처진변만호부(合浦等處鎮邊萬戶府)와 전라도진변만호부(全羅道鎮邊萬戶府)는 왕경등처순군만호부(王京等處巡軍萬戶府), 서경등처관수수군만호부(西京等處管水手軍萬戶府), 탐라군민만호부(耽羅軍民萬戶府) 등과 함께 원나라 간섭기의 5개의 만호부를 형성하였다.

진변만호부(鎮邊萬戶府)를 처음에 왜구 방어를 위해 원에서 설치했지만 3차 원정 계획이 좌절된 이후에는 고려 내의 군사 기구로만 기능하였으며 훗날 1356년(공민왕 5) 반원(反元)정책을 실시하면서 원나라 관제라는 이유로 모두 폐지되었다.

#### (다). 선박 건조 및 병력동원 계획

2차 일본원정에서 대부분의 군선을 잃어버린 쿠빌라이 칸(忽必烈:Хубилай хаан)은 제3차 일본원정(日本遠征)을 준비하여 1282년 9월, 평난(平瀾)고려(高麗), 탐라(耽羅), 양주(揚州), 융흥(隆興), 천주(泉州)에서 새로운 대소 3,000척의 군선의 건조를 개시했다.<sup>69)</sup>

하지만, 이러한 대조선사업은 대량의 목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평난(平瀾)에서는 산은 민둥산이 되고, 절이나 고분에서도 나무를 벌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sup>70)</sup> 또, 평난의 우타이산에 절을 세우는 일이나 남성의 새로운 절의 건립도 배를 만드는 데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69) 『元史』卷12 本紀第13 世祖9 至元19年 9月 壬申條“平瀾，高麗，耽羅及揚州，隆興，泉州，共造大小船，三千艘。”

70) 『元史』卷12 本紀第12 世祖9 至元19年 5月 庚辰條“庚辰，議於平瀾州造船，發軍民合九千人，令探馬赤伯要帶領之，伐木於山，及取於寺觀墳墓，官酬其直，仍命栾哥遣人，督之。”

중지되었다<sup>71)</sup>. 또한 군선이 부족하자, 민간에서 상선을 징발해, 일본원정의 군선으로 전용하였다<sup>72)</sup>.

한편 당시 쿠빌라이 칸은 원 내부 및 동남아 쪽 반란들로 즉시 일본원정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었다. 1282년 베트남 남부의 참파왕국이 원의 사신을 억류하자 몽골대장 사도가 전함 1000척을 이끌고 공격해 수도를 함락시켰지만 귀국 도중 식량 보급로가 끊겨 전멸하고 말았다. 또는 1283년 쿠빌라이는 원의 사신을 추방한 미얀마를 공격해 1289년 복속시켰다.

하지만 1283년 1월 고려에 일본행성을 재설치하여 군사를 모아 조선의 지휘를 맡게 해 일본원정을 서둘렀다<sup>73)</sup>.

2차 일본원정에서 군선의 대량상실 때문에 이번 출병계획에는, 군사의 부족 때문에, 중범죄자의 수인부대(囚人部隊)도 동원하는 계획이었다<sup>74)</sup>. 또, 그 때문에, 아탑해(阿塔海:Адхай)는 도원수 장림(張林), 초토사 장선(張瑄), 관군총관 주청(朱淸) 등 군관으로서 배에 익숙한 자를 찾아서 출정에 대비하도록 했다<sup>75)</sup>. 또한, 좌승 철리첩목아(徹里帖木兒)와 관군만호 35인이 중심이 되어 수련을 실시한 병사 중에는 몽골군 2,000인이나 심마적군(深馬赤軍) 10,000인 등의 원조정예부대도 포함해서, 그 중 500명에게는 일반 전투 훈련 외에 해상전투 훈련을 실시했다.<sup>76)</sup> 따라서 일본원정은 강남지방

71) 『元史』卷12 本紀第12 世祖9 至元20年 3月 己未條 “御史臺臣言, 平濠造船, 五臺山造寺伐木, 及南城建新寺, 凡役四萬人, 乞罷之, 詔伐木建寺, 卽罷之, 造船一事, 其與省臣議.”

72) 『元史』卷12 本紀第12 世祖9 至元20年 7月 丙辰條 “諭阿塔海, 所造征日本船, 宜少緩之, 所拘商船, 其悉給還.”

73) 『元史』卷208 列傳第95 外夷1 日本國 “二十年, 命阿塔海爲日本省丞相, 與徹里帖木兒右丞, 劉二拔都兒左丞, 募兵造船, 欲復征日本. 淮西宣慰使昂吉兒上言民勞, 乞寢兵.”

74) 『元史』卷12 本紀第12 世祖9 至元20年 5月 甲戌條 “甲戌, 發征日本重囚, 往占城, 緬國等處, 從征.”

75) 『元史』卷12 本紀第12 世祖9 至元20年 4月 壬辰條 “阿塔海求軍官習舟楫者, 同征日本, 命元帥張林, 招討張瑄, 總管朱淸等行.”

에서 징발한 군세를 주력으로 해서, 1283년 8월에 실행하는 것이 예정되었다77).

일단 백지화된 당초의 출병예정일이었던 1283년 8월경, 다시 출병계획이 부상했다. 하지만 1283년 8월, 민간에서 일본침공용으로 징발되어 있던 민간선 500척을 백성의 궁핍으로 인하여 반환하였으므로 몽골인의 대선주(大船主) 아팔적(阿八赤)이 소유한 배를 징발해 수리를 해서, 일본행성승상·아탑해(阿塔海)의 일본침공용 함선군에 편입되었다78).

같은 해 9월, 강남지방의 광둥(廣東)에서 대규모 도적의 봉기가 일어났다. 따라서 쿠빌라이는 즉시 군사 10,000인으로 이것을 진압했다79).

같은 해 10월, 계속해서 강남지방 복건에서 송 왕조의 부흥을 슬로건으로 황화가 100,000명이라고 하는 군중을 이끌고 봉기했다. 반란군은 자신들을 두타군(頭陀軍)이라고 칭해 송조(宋朝)의 연호를 사용했다. 원은 즉시 22,000명의 군세를 진압을 위하여 파견했다80). 이 반란에는 일본행성좌승 유국걸(劉國傑)이 일본침공부대를 거느리고 진압에 나섰다81).

1284년 2월, 쿠빌라이 칸은, 이와 같은 국내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조선을 중시했다82). 게다가 적대관계에 있었던 베트남 남방의 참파왕국과의 정세

76) 『元史』卷12 本紀第12 世祖9 至元20年 正月壬申條“命右丞闍里帖木兒及万户三十五人，蒙古軍習舟師者二千人，探馬赤萬人，習水戰者五百人，征日本。”

77) 『高麗史』 忠烈王9年 3月 卯朔 “中郎將柳庇還自元，言，帝徵江南軍，將以八月東征日本。”

78) 『元史』卷12 本紀第12 世祖9 至元20年 8月 丁未條“浙西道宣慰使史弼言，頃以征日本船五百艘，科諸民間，民病之，宜取阿八赤所有船，修理，以付阿塔海。”

79) 『元史』卷12 本紀第12 世祖9 至元20年 9月 辛未條“以歲登，開諸路酒禁，廣東盜起，遣兵万人討之，”

80) 『元史』卷12 本紀第12 世祖9 至元20年 10月 庚子條“建寧路管軍總管黃華叛，衆凡十万，号頭陀軍，偽称宋祥興五年，犯崇安，浦城等縣，圍建寧府，招卜怜吉帶，史弼等將兵二万二千人討平之。”

81) 『元史』卷262 列傳第49 劉國傑 “會黃華反建寧，乃命國傑以征東兵會江淮參政伯顏等討之。”

82) 『元史』世祖本紀10 至元21年 2月 辛巳條“罷高麗造征日本船。”

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3차 일본침공계획의 총사령관 아탑해(阿塔海)에게 명령해, 일본침공부대 중에서 15,000명의 군사와 군선 200척을 참파왕국에 파견했다<sup>83)</sup>. 이처럼 원의 국내정세나 참파왕국과의 적대관계에 따른 불안정화 때문에 다시 일본침공계획을 중지했다<sup>84)</sup>.

그러나 1284년 10월 쿠빌라이는 일본침공용 배와 뱃사람 모집을 개시하여 다시 일본침공준비를 준비했다.<sup>85)</sup> 1285년 4월, 강회(江淮)지방에 일본침공용 군량과 군선을 운반해, 거기서 해전훈련을 실시하였다<sup>86)</sup>.

같은 해 6월, 쿠빌라이는, 실체가 불분명한 「영풍선(迎風船)」이라는 군선의 건조를 여진족에게 명했다<sup>87)</sup>. 게다가 뱃사람의 모집방법도 항해에 종사하는 자를 통해서, 뱃사람을 천명을 모으면 천호의 군직, 백명을 모은 것은 백호의 군직을 주는 것으로 했다<sup>88)</sup>. 또, 죄수를 사면하는 대신에 그 얼굴에 문신을 하게해 뱃사람으로, 남송 시대에 사염(私鹽)을 판매해서 항해기술이 있는 자도 뱃사람으로 삼았다<sup>89)</sup>.

1285년 11월, 제3차 일본원정의 작전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은, 2차 일본원정의 반성에서,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한반도의 합포(合浦)에 전군을 집결시키고 나서 일본원정을 실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군량은 강회(江淮) 지

83) 『元史』卷13 本紀第13 世祖10 至元21年 2月 丁未條 “命阿塔海，發兵万五千人，船二百艘，助征占城。”

84) 『元史』卷13 本紀第13 世祖10 至元21年 5月 壬子條 “拘征東省印。”

85) 『元史』卷13 本紀第13 世祖10 至元21年 10月 甲戌條 “甲戌，招諭行中書省，凡征日本船及長年篙手，并官給鈔增价募之。”

86) 『元史』卷13 本紀第13 世祖10 至元22年 4月 丙午條 “丙午，以征日本船運糧江淮及教軍水戰。”

87) 『元史』卷13 本紀第13 世祖10 至元22年 6月 庚戌條 “六月庚戌，命女直，水達達，造船二百艘及造征日本迎風船。”

88) 『元史』卷13 本紀第13 世祖10 至元22年 10月 丁卯條 “仍敕習泛海者，募水工至千人者爲千戶，百人爲百戶，”

89) 『元史』卷13 本紀第13 世祖10 至元22年 11月 丙申條 “丙申，赦囚徒，黥其面，及招宋時販私鹽軍習海道者爲水工，以征日本。”

방에서 800만석을 징발해, 고려와 동경(요양)에 각각 10만석을 저장하게 했다<sup>90)</sup>. 이 작전에 고려에게 부여된 군역은 군사 10,000명과 군선 650척이었다<sup>91)</sup>.

같은 해 12월, 군적조례를 시행했다. 일본원정의 병사로 전국에서 장사(壯士) 및 유력자를 선발해 일본침공부대에 충당했다. 또한 오위군(五衛軍)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 장비를 정비케하고, 다음해 정월 1일에 원의 수도·대도(大都)에 결집하도록 명령했다. 또, 강희행성에서는 군선 1,000척에서 수상전투의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최신예의 투석기인 회회포(回回砲)의 포수로 50명이 군에 투입되었다<sup>92)</sup>.

그런데 쿠빌라이는 1286년 1월에 계획을 완전히 바꾸어, 일본원정계획이 중지되었다. 그 이유는, 일본침공계획이 원의 군민에 무거운 부담을 지워 곤궁함이 극도에 달했던 것, 또한 외정(外征) 중이었던 베트남의 진조대월국(陳朝大越國)과 참파왕국과의 전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쿠빌라이가 제3차 일본원정계획을 중지한 것은, 이하와 같은 쿠빌라이와 예부상서 유선(劉宣)과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선은, 일찍이 수나라가 고구려에 침공해 자주 패배한 예를 인용해 “설령 바람을 만나지 않고, 그 나라의 기슭에 이르러도, 왜국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다. 그 군사는 사방에서 모여들고, 우리 군에 후원은 없다. 만일 전투가 불리해져, 구병(救兵)을 보내려고 해도, 즉시 바다를 날아서 건널 수는 없다”라고 말

90) 『元史』卷13 本紀第13 世祖10 至元22年 11月 癸巳條 “癸巳，敕漕江淮米百万石，泛海貯於高麗之合浦，仍令東京及高麗各貯米十万石，備征日本。諸軍期於明年三月以次而發，八月會於合浦。”

91) 『元史』卷13 本紀第13 世祖10 至元22年 11月 戊寅條 “戊寅，遣使告高麗發兵万人，船六百五十艘，助征日本，仍令於近地多造船。”

92) 『元史』卷13 本紀第13 世祖10 至元22年 12月 己亥條 “增阿塔海征日本戰士万人，回回砲手五十人。己亥，從樞密院請，嚴立軍籍條例，選壯士及有力家充軍。敕樞密院，向以征日本故，遣五衛軍家治裝，今悉選壯士，以正月一日到京師。江淮行省以戰船千艘習水戰江中。”

해, 일찍이 수나라의 고구려침공 이상으로 일본원정이 곤란한 것으로, 쿠빌라이에게 일본침공을 중지할 것을 간언했다<sup>93)</sup>.

이것에 대해, 쿠빌라이는 “일본은 고원(孤遠)한 도이(島夷)이기 때문에 재차 민력(民力)을 곤란하게 하므로, 일본을 정벌하는 것을 그만둔다.”<sup>94)</sup>라고 말해, 일본침공계획을 중지했다.

일본원정을 포기한 쿠빌라이는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일찍이 침략한 적은 없다. 지금은 교지<sup>95)</sup>가 우리나라의 변경을 범하고 있다. 일본은 그냥 두고 교지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sup>96)</sup>라고 하여 일본에서 잠시 눈을 돌렸다.

그러나 쿠빌라이는 5년에 걸친 내란이 잠잠해지자, 다시 일본침공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1292년 8월 세자가 황제 쿠빌라이를 자단전(紫檀殿)에서 알현할 때 정가신(鄭可臣)과 유비(柳庇) 등이 따라 들어갔다. 그때 정우승(丁右丞)이란 자가,

“강남(江南)의 전함이 규모가 크긴 하지만 충돌하기만 하면 부서져 버리니 그 결함 때문에 전번 정벌에 실패한 것입니다. 만일 고려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해서 다시 정벌하면 일본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귀띔했다. 황제가 일본을 정벌할 계책을 묻자 홍다구(洪茶丘)의 동생 홍군상(洪君祥)

93) 『元史』 卷166 列傳第55 劉宣 “況日本海洋万里，疆土濶遠，非二國可比，今次出帥，動衆履險，縱不遇風，可到彼岸，倭國地廣，徒衆猥多，彼兵四集，我帥無援，万一不利，欲發救兵，其能飛渡耶，隋伐高麗，三次大舉，數見敗北，喪師百万，唐太宗以英武自負，親征高麗，雖取數城而還，徒增追悔，且高麗平壤諸城皆陸地，去中原不遠，以二國之衆加之，尙不能克，況日本僻在海隅，與中國相懸万里哉，帝嘉納其言。”

94) 『元史』 卷14 本紀第14 世祖11 至元23年 正月甲戌條 “甲戌，帝以日本孤遠島夷，重困民力，罷征日本，”

95) 베트남 북부의 나라. 진조대월국(陳朝大越國)이다.

96) 『元史』 卷208 列傳第95 外夷1 日本國 “二十三年，帝曰，日本未嘗相侵，今交趾犯邊，宜置日本，專事交趾。”

이,

“군사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니, 먼저 사신을 보내 고려에 묻고, 그런 후에 이것을 실행할 것이 타당합니다.”

라고 진언하니 황제가 옳은 말이라 여겨 그것을 승낙했다.<sup>97)</sup>

이에 1292년 9월에 원나라에서 홍군상(洪君祥)을 보내, 원에 구류되어 표착한 일본인의 호송을 고려에 명하는 것과 함께, 황제의 뜻이라며 일본 정벌에 대해 의견을 묻자 왕은,

“내가 황제에게 복속하지 않은 자와 이웃하고 있으니 마땅히 미력이나마 몸소 토벌에 참가할까 합니다.”라고 대답해, 일본침공에 적극적 자세를 쿠빌라이에게 나타냈다<sup>98)</sup>. 그것에 응해, 쿠빌라이는 다시, 전함의 조선을 고려에 명했다<sup>99)</sup>. 따라서 1292년 9월부터 제3차 일본원정 계획이 다시 진행되었다.

97) 『高麗史』 忠烈王18年 8月, “丁未 世子謁帝于紫檀殿, 鄭可臣·柳庇等隨入. 有丁右丞者奏, “江南戰船, 大則大矣, 遇觸則毀, 此前所以失利也. 如使高麗造船, 而再征之, 日本可取.” 帝問征日本事, 洪君祥進言曰, “軍事至大, 宜先遣使, 問諸高麗, 然後行之.” 帝然之.“

98) 『高麗史』 忠烈王18年 9月, 壬午(24日) “壬午, 元遣洪君祥來, 命我護送日本人還其國, 君祥以帝旨, 問征日本事, 王對曰, 臣旣隣不庭之俗, 庶當躬自致討, 以効微勞, 君祥獻馬, 遂宴于香閣.”

99) 『高麗史』 忠烈王19年 “八月, 元遣萬戶洪波豆兒來, 管造船, 寶錢庫副使瞻思丁管軍糧, 將復征日本也.”

## 2. 고려의 대응

### (가). 선박 건조

쿠빌라이 칸은 1281년 10월 2차 일본원정 직후 3차 일본원정(日本遠征) 준비 및 왜구 방어를 위하여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를 고려에 설치했다. 따라서 1282년 7월 쿠빌라이 칸(忽必烈:Хубилай хаан)의 재침공의 동향을 알게 된 고려 충렬왕(忠烈王)은, 150척의 군선을 건조해 일본원정을 돕고 싶다는 뜻을 쿠빌라이에게 상주하였다<sup>100)</sup>.

이에 충렬왕은 각 도에 사신들을 보내 전함을 수리 건조하도록 함으로써 3차 일본원정(日本遠征) 준비를 진행하였다.

1282년 11월에 원나라에서 독혼(禿渾)과 하중겸(賀仲謙)을 보내 고려를 전함을 수리하게 하려고 하자 충렬왕은 같은 달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송분(宋玠)을 경상도로,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김백균(金伯均)을 전라도로, 밀직부사(密直副使) 우준충(禹濬冲)을 충청도로,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 김지경(金之卿)<sup>101)</sup>을 서해도로 각각 파견하여 전함을 적극적으로 수리하게 함<sup>102)</sup>으로써 1283년 8월로 계획된 일본원정을 대비해 준비를 하고

100) 『元史』卷12 本紀第12 世祖9 至元19年 7月 壬戌條「高麗國王，請自造船一百五十艘，助征日本，」

101) 김지경(?~1296) : 충렬왕 때 판사재시사·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를 역임한 문신관료이다.

102) 『高麗史』忠烈王8年 11月 「庚辰 元遣禿渾·賀仲謙，修戰艦. 丙戌 分遣知密直司事宋玠于慶尙，同知密直司事金伯均于全羅，密直副使禹濬冲于忠淸，判司宰金之卿于西海，以修戰艦.」

있었다.

바로 그 해 4월에 원나라에서 타나(塔納:탐납:Дань)와 아보토라(阿孛朮剌:Абитөр)를 보내 전함을 수리하는 것을 감독하게 함<sup>103)</sup>으로써 일본원정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원나라에서는 2차 원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원정 준비한 바람에 백성들의 반대 및 원내의 반란 문제들 때문에 쿠빌라이 칸은 1283년 5월에는 일본침공계획을 일단 중지했다. 고려는 침공계획이 중지된 것을 받아들여, 조선 및 징병을 중지했다<sup>104)</sup>. 따라서 원내부의 문제들 때문에 한동안 일보원정 준비를 중지했던 쿠빌라이는 원내부의 반란들이 잠잠해지자 다시 고려에 선박 건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1285년 11월 원나라 사신이 고려에 온 김에 동정용(東征用) 선박건조도 독려하고 갔다. 12월에는 원나라 중서성에서 사람을 보내 선박건조를 독려하였고, 또 군사들과 초공(梢工)·수수(水手)의 명단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sup>105)</sup> 이에 따라 충렬왕은 동지밀직사사 송분(宋玢)을 경상도 조선 도지휘사로 임명하였고 또 여러 도들에 사신을 보내 선박건조를 독려케 하였다.

하지만 1286년 1월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대사령을 발포하고 일본 정벌사업을 중지한다고 통지하자<sup>106)</sup> 고려는 그 명을 받아들여 일본원정 준비를 중지하였다.

한편 1287년부터 원나라의 반군(叛軍) 내안(乃顔)의 부장이었던 카다안(哈丹;합단:Хадаан)이 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원나라 장수 나만대(那蠻

103) 『高麗史』 忠烈王9年 4月 “元遣塔納·阿孛朮剌來，督修戰艦。”

104) 『高麗史』 忠烈王9年 5月 己卯 (26日) “鄭仁卿等還自元言，帝寢東征之議，王命罷修艦調兵等事。”

105) 『高麗史』 忠烈王11年 12月“辛丑 元中書省遣人來，督造船。又令申報軍兵·梢工·水手名目。”

106) 『高麗史』 忠烈王12年 1月“丙戌 元遣使，詔大赦，寢東征。”

帶:Най мандай)에게 패하자 방향을 바꾸어 1290년에 고려에 쳐들어와 소란이 일어나났다. 이로써 카다안의 반란이 일어난 동안 원은 일본원정을 생각할 틈도 없었다.

카다안(哈丹;합단:Хадаан)의 침입을 물리친 다음 해인 1292년 8월에 세자가 원나라 황제를 자단전(紫檀殿)에서 알현하였는데 정(丁) 우승이라는 자가 황제에게 3차 일본원정 때 쓸 전선을 고려로 하여금 건조하도록 하자는 요청을 쿠빌라이에게 건언한 일이 있었다. 따라서 쿠빌라이는 일본 정벌사업에 관해 홍군상(洪君祥)에게 문자 군사 환동이 중요한 일이라 고려 측에 일단 문자 하여 홍군상(洪君祥)이 고려에 사신으로 와서 충렬왕에게 물었다. 충렬왕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전선 준비 일을 받아드려 전함 건조를 서둘렀다.

따라서 1293년 8월에 원나라에서 만호 홍파두래(洪波豆來)를 파견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일을 관할케 했었다.<sup>107)</sup> 이에 충렬왕은 도지휘사를 각처로 보냈는 바 충청도에 판밀직 김지숙(金之淑)을, 전라도에 지밀직 최유엄(崔有滄)을, 경상도에 도첨의참리 김훈(金暉) 등을 파견하여 선박준비를<sup>108)</sup>하며 일본 정벌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 (나). 병력 동원 및 군량 준비

쿠빌라이 칸(忽必烈:Хубилай хаан)의 제3차 일본원정(日本遠征)이 1283년 8월로 계획되었다는 임명을 받은 충렬왕(忠烈王)은 각 도에 사신들

107) 『高麗史』 忠烈王19年 8月“元遣萬戶洪波豆兒來，管造船，寶錢庫副使瞻思丁管軍糧，將復征日本也。”

108) 『高麗史』 忠烈王19年 8月 “分遣都指揮使，判密直金之淑于忠清，知密直崔有滄于全羅，都僉議叅理金暉于慶尙道，以備船糧。”

을 보내 군량을 준비하고 병기를 제작하고 전함을 건조함으로써 3차 일본 원정 준비를 시작했다. 또는 군량의 경우는 1차, 2차 일본원정에서 군량을 준비했었던 것과 같이 고려가 군량을 준비하기로 하여 제3차 일본원정을 위해서 원은 10만 석을 고려로 준비하도록 했다.

바로 그 해 4월에 원나라에서 타나(塔納:탐납:Дань)와 아보토라(阿孛禿刺:Абитөр)를 보내 전함을 수리하는 것을 감독하게 함<sup>109)</sup>으로써 일본원정 준비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3차 일본원정 계획이 진행되던 그 시점에 원나라에서 원내부의 반란이 일어남으로 인해 쿠빌라이가 1283년 5월에는 원의 일본침공계획을 일단 중지하자 고려도 징병을 중지했다<sup>110)</sup>.

1285년 12월에 원나라 중서성에서 사람이 와서 군사들과 초공·수수의 명단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sup>111)</sup> 이에 따라 충렬왕은 동지밀직사사 송분(宋玠)을 경상도 조선 도지휘사로 임명하였고 또 여러 도에 사신을 보내 군량 비축을 독려케 하였다.

1285년에 원나라에서 화살을 만드는 장인 10명을 보내왔다.<sup>112)</sup> 아마도 일본원정에 쓸 병기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 1285년 12월에 원나라 중서성에서 공문을 보내 군량 10만 석을 징발하여 조달하라고 요구했다.<sup>113)</sup> 그런데 1286년 1월 원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대사령을 발표하고 일본 정벌사업을 중지한다고 통지하자<sup>114)</sup> 충렬왕은 일본원정 준비를 중지시켰다.

109) 『高麗史』 忠烈王9年 4月 “乙酉 4월 元遣塔納·阿孛禿刺來，督修戰艦。”

110) 『高麗史』 忠烈王9年 5月 己卯 (26日) “鄭仁卿等還自元言，帝寢東征之議，王命罷修艦調兵等事。”

111) 『高麗史』 忠烈王11年 “辛丑 元中書省遣人來，督造船。又令申報軍兵·梢工·水手名目。”

112) 『高麗史』 忠烈王11年 12月 “甲寅 元遣箭匠十人來。”

113) 『高麗史』 忠烈王11年 12月 “丁卯 元中書省牒，調發軍糧十萬石。”

114) 『高麗史』 忠烈王12年 1月 “丙戌 元遣使，詔大赦，寢東征。”

그 다음 해인 1287년 5월 충렬왕이 내안(乃顔)이 반란을 일으킨 소식을 듣고 장군 유비(柳庇)를 원나라에 보내 고려도 군대를 출정하여 역적토벌을 원조하겠다고 청하였다.<sup>115)</sup> 6월에 유비(柳庇)가 원나라에서 돌아와 황제가 병력원조를 수락하였다고 전하였다. 따라서 고려는 군대를 사열하고 군대사열이 끝나자 한희유(韓希愈)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반란군의 토벌을 돕기 위해 출발하였다.<sup>116)</sup>

1288년 2월에 장군 오인영(吳仁永)을 원나라에 파견하였다. 당시에 북방의 역적이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고려도 마땅히 병력을 파견하여 토벌을 도와야 할 것이었으나 왕이 곤란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오인영을 원나라에 보내 청하였다.<sup>117)</sup> 1288년 3월 장군 오인경이 원나라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내안의 잔당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군대를 징발하여 황제가 친히 정벌하게 되었는데 고려의 군대는 동변을 지키라는 명이 있다”라고 하였다.<sup>118)</sup>

충렬왕의 명령으로 그 해 5월 만호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나유(羅裕)가 군대를 거느리고 쌍성 방면으로 출발했다.<sup>119)</sup> 얼마 후 오인영이 원나라로부터 돌아왔는데 “건주에 군량을 운반하여 정벌을 원조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과 “군사들을 철령으로 옮겨 주둔하여 수비하며 국왕은 자기 나라에 머물러 지키고 있으라”는 황제의 명을 전달했다.<sup>120)</sup> 1289년 7월에 하

115) 『高麗史』 忠烈王13年 5月 “壬寅 王聞乃顔大王叛，遣將軍柳庇如元，請舉兵助討。”

116) 『高麗史』 忠烈王13年 6月 “壬戌 柳庇還自元，帝許助兵。癸亥 閱兵。”

117) 『高麗史』 忠烈王14年 2月 “辛酉 遣將軍吳仁永如元。時，北賊叛亂，我國宜起兵助戰，而王難之，遣仁永入奏曰，今東鄙未寧，請親率征北兵 移鎮雙城。”

118) 『高麗史』 忠烈王14年 3月 “壬寅 將軍吳仁永還自元言，‘帝以乃顔餘黨復叛，發兵親征，以我國軍，戍東藩.’”

119) 『高麗史』 忠烈王14年 5月 “辛丑 萬戶同知密直司事羅裕，領軍啓行。”

120) 『高麗史』 忠烈王14年 5月 “壬子 吳仁永還自元。帝命除建州運糧，以助征兵，移戍鐵嶺，國王宜留鎮本國。”

이두(海都:해도:카이두:Хай ду)<sup>121)</sup>의 군사들이 변강을 침범하였으므로 쿠빌라이가 장차 친히 정벌하러 가기 위하여 아단부카(阿旦不花:아단불화:Адан буха)를 파견하여 출병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고려는 조정군(助征軍)<sup>122)</sup>을 파견해서 원을 도왔다.<sup>123)</sup> 이후 원(元:Юань гүрэн) 내부가 평안해지자 1289년 10월에 원나라 황제가 조정군 파견을 중지하라고 명하자 고려에서는 조정군을 중지했다.

반란이 평정되자 쿠빌라이 칸은 다시 일본원정 계획을 생각하며 1289년 10월에 원나라 상사성(尙書省) 및 추밀원(樞密院)에서 관원을 보내 동쪽 일본을 정벌할 때에 사용하던 무기로서 합포에 보관해 둔 것을 검열하였다.<sup>124)</sup>

하지만 1290년 1월 나얀(乃顏:내안:Наян)의 군대에 속했던 카다안(哈丹:Хадаан)이 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원나라에서 돌아온 장군 오인영(吳仁永) 등이 충렬왕에게 내안의 잔당인 카다안의 군대가 고려 동쪽 국경을 침구하려 한다는 보고를 했다.<sup>125)</sup> 따라서 고려는 이에 대비하여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홍자번(洪子蕃), 판밀직사(判密直事) 정가신(鄭可

121) 하이두(海都:해도:카이두:Хай ду)(?-1302) : 우구데이칸의 다섯째 아들인 카시[合失]의 아들이다. 구육 사후 몽케칸에 의해 우구데이 가문이 제거 당할 때, 몽케에게 투항하여 겨우 자신의 영지를 지킬 수 있었다. 몽케가 사망하자 아릭부케와 함께 쿠빌라이에 반기를 들었으며 이후 중앙아시아를 점령하여 지속적으로 쿠빌라이와 주치 가문을 압박했다.(출처:라시드 앳 딘 지움, 김호동 옮김, 『칸의 후예들』, 사계절, 2005, 26-29쪽. 『원사』 권107, 왕실세계표. 카시(合失)대왕, 두산백과.)

122) 조정군(助征軍): 국가간의 외교에서 상대국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해 파견하는 군대.

123) 『高麗史』 忠烈王15年 “癸卯 帝以海都兵犯邊, 將欲親征, 遣阿旦不花來, 徵兵. 八月 戊申 命洪子蕃·趙仁規等, 會奉恩寺簽軍, 又徵諸道兵.”

124) 『高麗史』 忠烈王15年 10月 “己丑 元尙書省及樞密院差官來, 闕東征日本時合浦兵器.”

125) 『高麗史』 忠烈王16年 1月 “甲子 將軍吳仁永等還自元, 言, ‘乃顏餘黨哈丹賊, 將侵我東鄙’.”

臣) 등으로 하여금 병부(兵部)에서 군사를 정비하게 했다.<sup>126)</sup> 또는 경상도 지휘사로 안전(安戩)을, 전라도지휘사로 김지숙(金之淑)을, 충청도지휘사로 송분(宋玢)을 각각 임명했다.<sup>127)</sup> 그리고 중군만호 정수기(鄭守琪)를 금기산동에 주둔시키고, 좌군만호 박지량(朴之亮)을 이천에, 한희유(韓希愈)를 쌍성에, 우군만호 김흔(金忻)을 환가에, 나유(羅裕)를 통천에 각각 주둔하게 해 카다안의 적도들의 침구에 대비하게 했다.<sup>128)</sup>

그해 5월 카다안의 군대는 원나라의 나만대(那蠻帶:Най мандай)에게 쫓겨 고려로 침입하여 해양(海陽)<sup>129)</sup> 지역까지 침구해 왔다고 김흔(金忻)·나유(羅裕)·정수기(鄭守琪) 등이 급히 보고했다.<sup>130)</sup> 따라서 고려 정부는 대장군 한신(韓愼)으로 하여금 서경의 군사들을 인솔하고 동계로 가서 카다안을 방어하게 했다. 반란이 계속되어 적의 기병이 남경(南京) 해양(海陽) 지역까지 침구해오자 충렬왕은 부인과 노약자들을 강화도로 옮겼다.<sup>131)</sup> 고려는 이와 같은 방어체제를 취하며 적군과 싸우고 있었던 바로 그 해 11월에 원군이 고려에 도착했다.

12월 초 카다안 군대 수만 명이 두 고을인 화주(和州)<sup>132)</sup>와 등주(登州)<sup>133)</sup>를 함락시키자 조정에서는 만호(萬戶) 인후(印侯)를 보내 수비하게 했다. 12월 12일경 원나라 평장사(平章事) 세토겐(薛闇干:Чэтугэн), 체리테

126) 『高麗史』 忠烈王16年 1月 “乙丑 僉議贊成事洪子藩, 判密直事鄭可臣等, 調兵于兵部.”

127) 『高麗史』 忠烈王16年 1月 “以安戩爲慶尙道都指揮使, 金之淑爲全羅道都指揮使. 戊辰 以僉議叅理宋玢爲忠淸道都指揮使.”

128) 『高麗史』 忠烈王16年 2月 “乙亥 遣中軍萬戶鄭守琪屯禁忌山洞, 左軍萬戶朴之亮屯伊川, 韓希愈屯雙城, 右軍萬戶金忻屯參猓, 羅裕屯通川, 以備丹賊.”

129) 지금의 함경북도 길주

130) 『高麗史』 忠烈王16年 5月 “戊申 金忻·羅裕·鄭守琪等馳報, ‘哈丹入海陽界.’”

131) 『高麗史』 忠烈王16年 10月 “丙申 賊騎至南京海陽界. 戊戌 徙婦人老弱于江華, 令州郡入保山城海島.”

132) 지금의 함경남도 금야

133) 지금의 강원도 안변

무르(閻梨帖木兒:Дүртөмөр)와 우승(右丞) 타추(塔出:Тац)가 13,000명을 거느리고 왔다.<sup>134)</sup> 군사가 도착하자 충렬왕은 병란을 피하여 강화도로 들어갔다. 1291년 1월 초 카다안의 군대는 교주도(交州道)에 난입하였고, 이어서 양근(陽根)<sup>135)</sup>을 함락시키고 나서 원주에 주둔했다. 이어 카다안의 군대가 치악성(雉嶽城)을 공격하자, 원주별초(原州別抄)에 속한 향공진사 원충갑(元冲甲)이 공격하여 이들을 패배시켰다.<sup>136)</sup> 원주에서 패한 카다안의 군대는 충주산성을 공격하다가 또다시 실패하고, 남하하여 연기현(燕岐縣)으로 갔다.

그해 1월 24일경 이지르부카세자<sup>137)</sup>(益智禮普化:Ижилбуха) 뒷날의 충선왕)가 쿠빌라이 칸에게 요청한 원병(援兵) 10,000명이 나만대의 지휘하에 4월 21일경에 고려에 이르렀다.<sup>138)</sup> 고려측에서는 중익군 만호 인후, 좌익군 만호 한희유, 우익군 만호 김흔 등이 군대를 이끌고 출동했다. 그리고 1291년 5월 원·고려 연합군이 연기현에 머물러 있는 카다안의 군을 공격하여 크게 패배시켰다.<sup>139)</sup> 이어 카다안의 후속부대가 교주까지 왔다가 연기(燕岐)에서의 패전소식을 듣고 철령(鐵嶺)을 넘어 달아났고 카다안군의 침략은 드디어 평정되었다.

이렇게 쿠빌라이의 명령을 받고 일을 마친 세토겐(薛閣干:Жэтугэн)과 나만대는 5월 말에 군사를 거느리고 모두 원으로 귀환했다.<sup>140)</sup>

134) 『高麗史』 忠烈王16年 12月 “癸酉 元平章事薛閣干·閻梨帖木兒, 右丞塔出等, 率步騎一萬三千人來.”

135) 지금의 양평

136) 『高麗史』 忠烈王17年 1月 “己未 哈丹踰鐵嶺, 闖入交州道, 攻陷楊根城. 甲寅 哈丹屯原州, 別抄·鄉貢進士元冲甲擊敗之.”

137) 젊은 황소라는 뜻

138) 『高麗史』 忠烈王17年 1月 “癸亥 世子謁帝, 請討哈丹. 帝命那蠻歹大王, 將兵一萬討之.”; 周采赫, 「쿠빌라이칸의 중앙집권화에 대한 카단宗王軍의 항전과 고려 鶴原山城 討伐戰」,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273쪽.

139) 『高麗史』 忠烈王17年 5月 “丁酉朔 丹賊住燕岐縣, 薛閣干大軍及我三軍, 至正左山下, 合擊, 大敗之.”

이후 고려 충렬왕(忠烈王)은 1291년 6월 죽전(竹田)에 김흔을, 충청도에 한희유를, 교주도에 나유를 보내 카다안의 남은 무리들을 추격하여 체포했다.<sup>141)</sup> 그뒤 카다안군 중 남은 부대는 북쪽으로 달아나다가 추격해온 한희유의 부대에게 패배당해 카다안과 그의 아들은 북쪽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1년 6개월 만에 카다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고려는 다시 안정을 찾았다. 따라서 1291년 9월 왕은 개경으로 환도했다.

반란이 잠잠해지자 그 다음 해인 1292년 8월에 세자가 쿠빌라이 칸을 만났는데 일본원정 계획과 관련하여 군선을 고려로 하여금 건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sup>142)</sup> 이후 1293년 8월에 원나라에서 보전고 부사 첨사정(瞻思丁)을 보내 군량을 관할케 하였으며 이것은 바로 장차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였다.<sup>143)</sup> 따라서 충렬왕은 도지휘사를 각처로 보내 군량을 준비하며 일본원정 준비를 했다.

140) 『高麗史』 忠烈王17年 5月“乙丑 薛闍干還. 王欲邀宴, 薛闍干曰, ‘受命事畢, 不可留.’ 遂登途. 丙寅 那蠻歹等, 皆還.”

141) 『高麗史』 忠烈王17年 6月“遣金忻于竹田, 韓希愈于忠清, 羅裕于交州道, 追捕哈丹餘賊.”

142) 『高麗史』 忠烈王18年 8月“丁未 世子謁帝于紫檀殿, 鄭可臣·柳庇等隨入. 有丁右丞者奏, ‘江南戰船, 大則大矣, 遇觸則毀, 此前所以失利也. 如使高麗造船, 而再征之, 日本可取.’ 帝問征日本事, 洪君祥進言曰, ‘軍事至大, 宜先遣使, 問諸高麗, 然後行之.’ 帝然之.”

143) 『高麗史』 忠烈王19年 8月“元遣萬戶洪波豆兒來, 管造船, 寶錢庫副使瞻思丁管軍糧, 將復征日本也.”

### 3. 일본의 대응

#### (가). 방루 설치 및 경계 강화

1차 일본원정군이 물러간 후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는 원(元:Юань гүрэн)의 재 2차 침입으로부터 일본(日本:Япон)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 경비를 한층 강화시켰다.<sup>144)</sup> 이어 규슈의 가인(家人)<sup>145)</sup>에게 원군의 재 침입에 대비하여 규슈 연안의 경비에 임하게 했다. 경비는 3개월 교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봄은 지쿠젠(筑前)·히고국(肥後國), 여름은 히젠(肥前)·부젠국(豊前國), 가을은 분고(豊後)·지쿠고국(筑後國), 겨울은 휴가(日向)·오스미(大隅)·사쓰마국(薩摩國)의 순서로 규슈의 가인(家人)이 담당했다<sup>146)</sup>

싯켄(執權)<sup>147)</sup> 호조 도키무네(北條時宗)는 몽골 제국의 침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위 체계를 구축했다.

1271년 호조 도키무네는 규슈에 영지를 가진 동국지방 가인(家人)에게 규슈로 가서, 몽고의 침입에 대비하게 하고, 이와 더불어 규슈의 악당(惡黨)들을 진압하도록 명령했다<sup>148)</sup>. 당시 가인(家人)은 본거지인 영지를 중심

144) 남기학, 「몽고의 일본 侵略과 일본의 對應-고려와 일본의 관계에 유의하여-」, 『몽골의 고려·일본 침공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9, 111쪽.

145) 家人-鎌倉·室町 시대에 장군과 주종 관계를 맺은 무사.

146) 竹内理三編, 『鎌倉遺文』古文書編 第十五卷 東京堂出版 一一八〇五号“蒙古警固結番事, 以使者民部次郎兵衛尉國茂, 令啓候, 被聞食候て, 可令被露給候, 恐々謹言, (文永十二年)二月四日 大宰少貳經資在判 進上 竹井又太郎殿 蒙古警固結番事 春三ヶ月<筑前國/肥後國>夏三ヶ月<筑前國/豊前國>秋三ヶ月<豊後國/筑後國>冬三ヶ月<日向國/大隅國/薩摩國> 文永十二年二月 日”, 『薩摩比志島文書』少貳經資書下.

147) 싯켄(執權)-가마쿠라 막부의 관직명

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도 영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때문에 몽골 제국이 내습하면 전쟁터가 될 규슈에 영지를 가진 동국 가인(家人)에게 경비를 맡기는 것을 목적으로 규슈로 갈 것을 지시한 것이다<sup>149)</sup>.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규슈에 간 동국 가인(家人)은 점차 규슈에 도착되어 갔다.

1273년 11월, 막부의 명령을 받은 쇼니 스케요시(少貳 資能)는 전시에 대비해 풍전(豊前) 축전(筑前) 비전(肥前) 일기도(壹岐) 대마도(対馬)의 가인령(家人領-가인들의 영지와 직무)을 파악하기 위해 가인령(家人領)에 이름·신체적 특징·영주의 인명 등을 기록한 증서를 지참해 다자이후에 출두하도록 했고, 이들 지역에 동원령을 내렸다.<sup>15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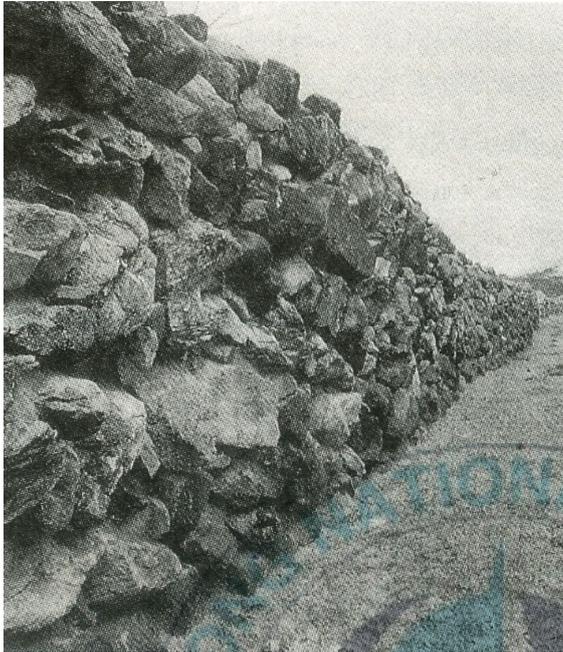
이후 1274년에 원의 1차 일본원정 침공을 격퇴한 가마쿠라 막부는 원나라와 연합해서 군대를 보낸 고려를 침공하려고 계획했다.<sup>151)</sup> 따라서 막부는 일본원정군이 물러간 이후 1276년 3월을 기해 고려에 원정군을 보낼 수 있도록, 규슈를 중심으로 무사들 동원령을 내렸다. 당시 이것은 이국정벌

148) 竹内理三編『鎌倉遺文』, 古文書編 第十四卷 東京堂出版, 一〇八七三号,“(上包)「北條相模守時宗 北條左京大夫政村」蒙古人可襲來之由, 有其聞之間, 所差遣御家人等於鎮西也, 早速自身下向肥後國所領, 相伴守護人(名越時章), 且令致異國之防禦, 且可鎮領內之惡党者, 依仰執達如件, 文永八年九月十三日 相模守(北條時宗)(花押) 左京權大夫(北條政村)(花押) 小代右衛門尉(重俊)子息等.”『肥後小代文書』, 關東御教書.

149) 川添昭二, 『元寇防壘編年史料—注解異國警固番役史料の研究』, 福岡市教育委員會, 1971, 57쪽.

150) 竹内理三編『鎌倉遺文』 古文書編 第十五卷 東京堂出版 一一四六八号) 『肥前松浦家文書』 少貳資能施行狀“今年八月三日 關東御教書, 今日十六日到來, 爲案之, 如狀者, 豊前·筑前·肥前·壹岐·對馬國國御家人等事, 或本御家人并地頭補任所々, 或給御下知知行之輩, 及就質券賣買之由緒, 被成安堵之族, 云其所名字分限, 云領主之交名, 且糺明所帶御下文·御下知, 且不漏一所, 平均可令注進之由, 所被仰下候也, 然者隨身所書帶證文, 可被上府候, 任 御教書之狀, 糺明子細, 可令注進言上候, 更不可有遲怠之儀候也, 恐々謹言, (文永十年) 十一月十六日 沙彌(少貳資能)(花押) 山代孫三郎殿”

151) 남기학, 「몽고의 일본 侵略과 일본의 對應-고려와 일본의 관계에 유의하여-」, 『몽골의 고려·일본 침공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9, 112쪽.



(異國征伐)이라고 칭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에는 하카타만 연안에 석축지(石築地)<sup>152)</sup>를 쌓는 공사가 시작되어 방어와 공격의 양면 작전은 전략적으로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출병에 동원된 사람을 제외한 규슈 사람이 석축지(石築地)의 축조를 맡았다.<sup>153)</sup>

따라서 막부는 1276년 3월 고려 출병을 천명하고, 쇼니 Tm네스케를 중심으로 규슈에 동원령을 내려 하카타에 병력과 선박을

그림 3. 석축지(石築地)(출처: 『역사 속의 한 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009, 남기학, 121쪽.)

집결시켰다. 이에 뱃사공이나 선원은 규슈를 중심으로 소집하였

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산음(山陰)·산양(山陽)·남해(南海) 각 도에서도 소집했다<sup>154)</sup>. 막부는 동원된 무사에게 선원, 뱃사공 등의 연령 및 동원한 숫자, 병기구, 배의 숫자 등을 기록하였고, 도망자에게는 엄벌을 부과하는 등 구체적으로 착착 출병 준비를 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석축지(石築地)의 축조에 막대한 비용과 인원을 필요로 한 것과 병선 부족 등의

152) 원나라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시설.

153) 週刊 韓日百科 日本의 歷史9, 中世 1-9 蒙古來襲, 韓日新聞社, 1986, pp.4-278.

154) 竹内理三編, 『鎌倉遺文』 古文書編 第十六卷 東京堂出版 一二一七〇号 『東寺文書』 關東御教案“明年三月比, 可被征伐異國也, 梶取·水手等, 鎮西若令不足者, 可省充山陰·山陽·南海道等之由, 被仰太宰少貳經資了, 仰安安藝國邊知行之地頭御家人·本所一圓地等, 兼日催儲梶取·水手等, 經資令相觸者, 守彼配分之員數, 早速可令送遣博多也者, 依仰執達如件, 建治元年十二月八日 武藏守(北條義政) 相模守(北條時宗) 在判 武田五郎次郎(信時) 殿”

이유로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한다.<sup>155)</sup>

이어 막부는 2차 침입 대비를 위해 경비를 강화하는 데 힘썼다. 2차 일본 원정은 1차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남송의 항복한 병사를 대량으로 투입했기 때문이다.

1281년 2차 일본원정때 대마도(對馬島)와 일기도(一岐島)를 점령한 원정군은 하카다(博多:박다)만에 나타나, 하카타만에서 북규슈로 상륙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미 방위 체제를 갖추어 하카타만 해안에 약 20km에 달하는 석축을 구축한 것이었다. 따라서 하카다의 해안선을 따라 석벽이 가로막고 있어 상륙을 감행하기 어려운 곳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하카다만을 향해 온 연합군은 작전을 변경해 하카다만 입구에 있는 동북쪽으로 길게 반도를 이루어 상륙하기 좋은 곳인 지하도(志賀島)를 공략하기로 했다. 지금도 2차 일본원정 당시 일본 측에서 방어시설 설치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20km에 달하는 석축지는 가장 튼튼한 부분에서 높이 3m, 폭 2m 이상에 달하며, 일본 측이 수비하는 내륙 방면에서는 말을 타고도 뛰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흙이 쌓여 있고, 원나라 군이 공격해 올 해변 쪽으로는 난항(난잡하게 박은 말뚝)과 가시나무 울타리 등의 상륙 방해물을 설치했었다고도 한다.

『여장기(予章記)』라는 일본 문서에 해상에서 본 하카타 만은 "험한 봉우리의 강에 임하는 것 같은" 외관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원의 1차, 2차 일본원정이 큰 성과를 얻지 못 하고 끝난 것을 알고 있었던 일본은 쿠빌라이 칸이 꼭 3차 일본원정을 할 것이라 생각하여 이에 대비하여 2차 일본원정 이후 석축지 수리 및 2차 원정 때 원의 일본원정군의 일환인 강남군이 저음 상륙한 곳 평호도에도 방어시설을 계획하

---

155) 福岡縣, 『福岡縣史』第一卷下冊 1962年 61頁

며 제3차 일본원정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 (나). 간첩의 파견

1272년 호조 도키무네는 일본의 경비 번역 설치를 고려하며 한편으로 대륙의 정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려에서 직접 첩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사』에 따르면 일본 측이 고려에 배를 파견해 첩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기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272년 7월에 왜선(倭船)이 금주(金州)에 당도하자 경상도 안찰사(按察使) 조자일(曹子一)이 왜국과 교통한 일이 발각 나 원나라로부터 견책(譴責)을 받을까 두려워 한 나머지 몰래 되돌려 보냈는데, 이를 알아챈 홍다구(洪茶丘)가 조자일을 엄하게 국문한 후 역마(驛馬) 편으로 급히 황제에게 보고했다.<sup>156)</sup> 따라서 1차 원정 이전에도 간첩을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쿠빌라이 칸의 명령으로 홍다구가 조자일을 조사했다. 결국 조자일은 홍다구의 가혹한 조사 끝에 처형되었다.<sup>157)</sup>

또한 일본 측은 1차 원정 이전에는 원이 몇 차례 걸쳐 보낸 사신으로부터 일본원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있었다. 한편 1차 일본원정 이후에는 쿠빌라이 칸이 남송(南宋:Өмнөд Сүн улс)을 아직은 복속시키지 못했던 때라서 남송과 일본은 무역을 하고 있었으며, 일송무역선(日宋貿易船)이 원의 정찰을 떠맡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고려 역시 2차 일본원정 직전에 고려의 군사기지가 있는 합포(合浦) 주

156) 『高麗史』 원종 13年 7月, “秋七月 甲子 倭船到金州, 慶尙道按撫使曹子一, 恐交通事覺, 獲譴于元, 密令還國, 洪茶丘聞之, 嚴鞫子一, 馳聞于帝.”

157) 『高麗史』 원종 13年 10月 “己亥 洪茶丘殺曹子一.”

변에서 어부가 연속적으로 왜적에게 납치되고 있는 것은 고려의 군사정보를 얻기 위한 정찰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sup>158)</sup>

2차 일본원정 직후부터 일본은 원에서 3차 일본원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고 원과 고려의 군사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군선을 건조시키고 있는 강남 지방에 간첩을 보냈던 사례가 있다.

일본은 간첩으로 2차 일본원정 때 항복한 가우(賈祐)라는 남송의 투항병을 강남에 파견하여 원(元)의 원정계획을 정찰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간첩 파견은 실패하고 원에 잡힌 것을 『원사』에서 볼 수 있다.<sup>159)</sup>

한편 일본 상선에 편승하여 원에 입국하는 일본 승려도 정찰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2차 원정 이후 3차 일본원정의 계획의 수집을 위한 정찰은 바로 가마쿠라 막부(幕府)의 주도로 행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sup>160)</sup>

또한 일본은 어부, 무역선, 간첩 등으로 원과 고려의 군사정보를 얻기 위한 정찰행동을 일본원정이 좌절될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도 생각된다.

3차 일본원정은 양국에게 있어서 조만간 실행될 현실 문제였다. 따라서 일본은 원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입장에서 계속 대비를 하고 있었다.

---

158) 사이키 코지, 「일본침공 이후의 麗日關係」, 『몽골의 고려·일본 침공과 한일 관계』, 경인문화사, 2009, 124쪽.

159) 『元史』卷12 本紀第12 世祖9 “至元十九年九月戊寅 戊寅, 給新附軍賈祐衣糧. 祐言, 爲日本國焦元帥婿, 知江南造船, 遣其來候動靜, 軍馬壓境, 愿先降附.”

160) 사이키 코지, 앞의 글, 124쪽.

제3차 일본원정 계획의 진행과정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연도	내용
1281.10	금주에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를 설치했다.
1282.1	일본 침공의 사령부·일본 행성을 폐지했다.
1282.7	쿠빌라이 칸의 재침공의 동향을 알게 된 충렬왕은, 150척의 군선을 건조해 일본침공을 돕고 싶다는 뜻을 쿠빌라이 칸에게 상주했다.
1282.9	평안(平溟), 고려(高麗), 탐라(耽羅), 양주(揚州), 융흥(隆興), 천주(泉州)에서 새로운 대소3,000척의 군선의 건조를 개시했다.
1282.11	원나라에서 독혼(禿渾)과 하중겸(賀仲謙)을 보내 고려를 전함을 수리하게 하려고 하자 충렬왕은 같은 달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송분(宋玢)을 경상도로,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김백균(金伯均)을 전라도로, 밀직부사(密直副使) 우준충(禹濬沖)을 충청도로,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 김지경(金之卿)을 서해도로 각각 파견하여 전함을 적극적으로 수리하게 함으로써 1283년 8월로 계획된 일본원정을 대비해 준비를 하였다.
12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행성을 재설치하였다.</li> <li>● 아탑해(阿塔海)를 일본행성승상에 임명해 일본재침공의 총사령관으로, 철리첩목아(徹里帖木兒)를 우승, 유국결(劉國傑)을 좌승에 임명해, 군사를 모아 조선의 지휘를 맡게 해 일본침공을 서둘렀다.</li> <li>● 이 출병계획에는, 군사의 부족 때문에, 중범죄자의 수인부대(囚人部隊)도 동원하려는 계획이었다.</li> <li>● 2차 일본침공에서 군선의 대량상실과 함께 많은 해상기술자(海事技術者)도 잃었기 때문에, 해상기술자(海事技術者)의 양성이 급선무였다. 그 때문에, 아탑(阿塔海)는 도원수·장림(張林), 초토사·장선(張瑄), 관군총관·주청(朱淸)등 배에 익숙한 군관을 찾을 것을 명해서 출정에 대비하도록 했다.</li> </ul>
12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승·철리첩목아(徹里帖木兒)와 관군만호 35인이 중심이 되어 훈련을 실시한 병사 중에는 몽고군 2,000인이나 심마적군(深馬赤軍)10,000인 등의 원조정예부대도 포함해서, 그 중 500명에게는 수련 외에 해상전투에서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li> <li>● 일본침공은 강남지방에서 징발한 군세를 주력으로, 이 해 8월에 실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li> </ul>

12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침공용의 군선의 조선을 맡은 강남지방에서는 도적이 봉기해, 원은 군대를 파견하는 등 진압에 고심했다.</li> <li>● 강남지방의 도적의 속발(잇달아 발생함)은, 원조 영역내의 원근을 막론하고 확대되어갔고, 뒤숭숭해졌다. 이와 같은 상태 속에 쿠빌라이는 일본침공계획을 중지, 혹은 연기할 것을 간언하는 자도 나타났다.</li> </ul>
1283.4	원나라에서 타나(塔納:타남:Дань)와 아보토라(阿孛剌:Абитер)를 고려에 보내 전함을 수리하는 것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일본원정 준비를 적극적으로 했었다.
1283.5	원내부의 문제로 5월에는 일본침공계획을 일단 중지했다.
1283.6	쿠빌라이 칸은 충렬왕을 정동중서성(征東中書省)의 좌승상(左丞相)으로 책봉하고 부마(駙馬) 고려국왕의 관작은 이전과 같으며 아탑해(阿塔海)와 함께 정동행성의 업무를 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1283.8	민간에서 일본침공용으로 징발되어 있던 민간선 500척을 백성이 곤궁했기 때문에 반환해 교체되어 몽골인의 대선주(大船主) 아팔적(阿八赤)이 소유한 배를 징발해 수리를 해서, 일본행성승상 아탑해(阿塔海)의 일본침공용 함선군에 편입되었다.
1283.9	강남지방의 광둥에서 대규모 도적의 봉기가 일어났다. 쿠빌라이 칸은 즉시 군사 10,000명으로 이것을 진압했다
1283.10	계속해서 강남지방의 복건에서 송 왕조의 부흥을 슬로건으로 황화울 있는 100,000인이라고 하는 군중이 봉기했다. 반란군은 자신들을 두타군(頭陀軍)이라고 칭해 송조(宋朝)의 연호를 사용했다. 쿠빌라이 칸은 즉시 22,000명의 군세를 진압으로 파견했다. 이 반란에는 일본행성좌승 유국결(劉國傑)이 일본침공부대를 거느리고 진압에 나섰다
128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빌라이 칸은 이와 같은 국내정세의 불안정화 속에서 고려를 제외한 조선을 중지했다.</li> <li>● 적대관계에 있었던 베트남 남방의 참파왕국과의 정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3차 일본침공계획의 총사령관·아탑해(阿塔海)에게 명령해, 일본침공부대 중에서 15,000의 군사와 군선 200척을 참파왕국에 파견했다.</li> </ul>
1284.5	원의 국내정세나 참파왕국과의 적대관계에 따른 불안정화 때문에 쿠빌라이 칸은 고려에 설치한 일본행성을 폐지하고, 다시 일본침공계획을 중지했다.
1284.10	쿠빌라이 칸은 일본침공용 배와 뱃사람 모집을 개시하여 다시 일본침공준비를 준비했다.

1285.4	강희지방에 일본침공용 군량과 군선을 운반해, 거기서 해전훈련을 실시하였다.
128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빌라이 칸은 다시 일본침공의 일본행성을 재설치 했다.</li> <li>● 뱃사람의 모집방법도 항해에 종사하는 자를 통해서, 뱃사람을 천명 모은 것에는 천 호의 군직, 백명을 모은 것은 백 호의 군직을 주는 것으로 했다. 또, 죄수를 하는 사면하는 대신에 그 얼굴에 문신을 하게해 뱃사람으로, 남송 시대에 사염(私鹽)을 판매해서 항해기술이 있는 자도 뱃사람으로 삼았다.</li> </ul>
128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일본침공의 작전계획이 발표되어 1286년 8월 이후 일본침공을 실행한다는 계획이었다.</li> <li>● 이번은, 2차 일본침공의 반성에서,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한반도의 함포(合浦)에 전군을 집결시키고 나서 일본침공을 실행한다는 계획이었다.</li> <li>● 군량은 강희지방보다 800만석을 징발해, 고려와 동경(요양)에 각각, 10만석을 저장하게 했다.</li> <li>● 제3차 일본 원정 작전에 고려에 주어진 구역은 군사 10,000명, 군선 650척이었다.</li> <li>● 이어 1285년 11월 원나라 사신이 고려에 온 김에 동정용 선박건조도 독려하고 갔다.</li> </ul>
128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적조례를 시행했다. 일본침공의 병사로 전국에서 장사(壯士) 및 유력자를 선발해 일본침공부대에 충당했다.</li> <li>● 오위군(五衛軍)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 장비를 정비케하고, 다음해 정월 1일에 원의 수도·대도(大都)에 결집하도록 명령했다.</li> <li>● 강희행성에서는 군선 1,000척에서 수상전투의 훈련을 실시했다.</li> <li>● 최신예의 투석기인 회회포(回回砲)의 포수로 50명이 군에 투입되었다.</li> <li>● 중서성에서 고려에 사람을 보내 선박건조를 독려하였고, 또 군사들과 초공(梢工)·수수(水手)의 명단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li> <li>● 이에 따라 충렬왕은 동지밀직사사 송분(宋玢)을 경상도 조선 도지휘사로 임명하였고 또 여러 도들에 사신을 보내 선박건조를 독려케 하였다.</li> </ul>

1286.1	<p>쿠빌라이 칸은 계획은 바뀌어 일본침공계획은 일단 중지했다. 그 이유는, 일본침공계획이 원의 군민에 무거운 부담을 강요한 것이 곤궁함이 극도에 달했던 것, 또한, 외정(外征)인 베트남의 진조대월국(陳朝大越國)과 참파 왕국과의 전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p>
1287-12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빌라이정권의 지주의 하나인 동방삼왕가(東方三王家)의 수반인 나얀(乃顔:내안:Наян)이 반란을 일으켰다.</li> <li>● 쿠빌라이의 친정(親征)에 의해 반란은 일단 진압되었다.</li> <li>● 나얀의 반란때에는 서방의 하이두(海都:해도:카이두:Хай дуу)도 카라코룸(몽골제국의 수도)을 목표로 해서 진격해, 1287년부터 1291년에 걸쳐, 원의 동부 전역에서 북부에서는 소란이 계속되었다.</li> <li>● 몽골제국 4대 황제·몽케의 시대에 복속되어 있던 베트남 북부의 진조대월국(陳朝大越國)과 원에 따르는 베트남 남부의 참파왕국도 반란을 일으켰다. 쿠빌라이는 직시 군사를 파견했다. 양군 격한 소모전이 되어, 최후에 원군(元軍)은 운남으로 철퇴중에 습격을 받아 궤멸적인 손해를 입었다.</li> <li>● 쿠빌라이는 나얀의 반란을 경계로 동남아시아 인도 양방면으로의 군사적 정책을, 경제 통상을 중시한 화평노선으로 전환했다고 말하며, 진조대월국(陳朝大越國)나 참파왕국, 또 1290년대에 침공이 있었던 자바(신가사리조(朝)·마자파히트(朝))에서도 교전 후썸 없어진 복속관계의 수복이나 조공관계의 재체결의 사절이 교환되고 있다.</li> <li>● 이들 전쟁을 제압한 후로 중국연안부에서 동남아시아방면으로의 상선의 왕래는 활발해져, 쿠빌라이 칸의 치세말기에는 남방으로 원에서 군사적 위협은 해소되었다.</li> <li>● 충렬왕에게 행상서성평장사(行尙書省平章政事)의 직함을 줬다.</li> </ul>
1288	<p>충렬왕에게 정동행상서성좌승상(征東行尙書省左丞相)의 직함을 줬다.</p>
1289.10	<p>고려에 상사성(尙書省) 및 추밀원(樞密院)에서 관원을 보내 동쪽 일본을 정벌할 때에 사용하던 무기로서 함포에 보관해 둔 것을 검열하였다.</p>
1290	<p>카다안(哈丹;합단:Хадаан)의 군대는 원나라의 나만대(那蠻帶:Най мандай)에게 쫓겨 고려로 침입하여 해양(海陽)지역까지 침구했다.</p>

129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다안(哈丹;합단:Хадаан) 군대 수만 명이 고려의 두 고을인 화주(和州)와 등주(登州)를 함락시키자 조정에서는 만호(萬戶) 인후(印侯)를 보내 수비하게 했다.</li> <li>● 원나라 평장사(平章事) 세토겐(薛閣干:Чэтугэн), 케리테무르(闊梨帖木兒:Дүртөмөр)와 우승(右丞) 타추(塔出:Тац)가 13,000명을 거느리고 왔다.</li> </ul>
12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다안(哈丹;합단)의 군대는 교주도(交州道)에 난입해, 이어서 양근(陽根)을 함락시키고 나서 원주에 주둔했다. 이어 카다안(哈丹;합단:Хадаан)의 군대가 치악성(雉巖城)을 공격하자, 원주별초(原州別抄)에 속한 향공진사 원충갑(元冲甲)이 공격하여 이들을 패배시켰다.</li> <li>● 원주에서 패한 카다안(哈丹;합단)의 군대는 충주산성을 공격하다가 또다시 실패하고, 남하하여 연기현(燕岐縣)으로 갔다.</li> </ul>
1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해 1월 24일경 당시 고려 세자가 쿠빌라이 칸에게 요청한 원병(援兵) 10,000명이 나만대(那蠻帶:Най мандай)의 지휘하에 4월 21일경에 고려에 이르렀다.</li> <li>● 원 고려 연합군 카다안(哈丹;합단)의 군을 공격하여 패배시켰다.</li> </ul>
1292.5	반란을 패배시킨 세토겐(薛閣干:Жэтугэн)과 나만대(那蠻帶:Най мандай)는 군사를 거느리고 모두 원으로 귀환했다.
1292.6	충렬왕은 죽전(竹田)에 김혼을, 충청도에 한희유를, 교주도에 나유를 보내 카다안(哈丹;합단:Хадаан)의 남은 무리들을 추격하여 체포했다.
12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빌라이는 5년에 걸친 내란이 잠잠해지자, 다시 일본침공을 고려하기 시작한다.</li> <li>● 9월부터 제3차 일본원정 계획이 다시 진행되었다.</li> </ul>

12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나라에서 만호(萬戶) 홍바투르[洪波豆兒]를 보내 전함의 건조를 주관하게 하고, 보전고부사(寶錢庫副使) 첨사정(瞻思丁)으로 하여금 군량(軍糧)의 조달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장차 일본을 다시 정벌하려는 의도였다.</li> <li>● 각 도의 도지휘사(都指揮使)로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김지숙(金之淑)을 충청도(忠淸道)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최유엄(崔有滄)을 전라도(全羅道)에, 도첨의참리(都僉議參理) 김훈(金暉)을 경상도(慶尙道)에 각각 파견해 함선과 군량을 준비하게 했다.</li> <li>● 낭장(郎將) 송영(宋英)을 원나라에 보내, 왕이 직접 입조해 일본 정벌에 관한 일에 대해 건의하겠다고 알리게 했다.</li> </ul>
129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제국의 5대 칸 원의 세조 쿠빌라이가 세상을 떠났다.</li> <li>● 쿠빌라이가 사거(死去)한 후로 일본침공계획은 차츰 중지되었다.</li> <li>● 황제의 사망으로 전함의 건조도 중지되었다. 당시 왕이 입조해 일본 정벌의 불합리성을 설명했으며, 또한 갑술년(원종 15, 1274)과 신사년(충렬왕 7, 1281) 두 번에 걸친 원정으로 바닷가의 재목(材木)을 거의 벌목해 버려 전함의 건조가 사실상 곤란했으므로 기한이라도 연기하고자 했다. 그런데 마침 황제가 죽었으므로 홍군상(洪君祥)이 승상(丞相) 울제이[完澤]1)에게 건의해 마침내 일본 정벌이 중지되었던 것이다.</li> </ul>

## IV. 원정계획의 좌절

### 1. 원의 내란과 외정(外征)

1287년 고려 북방의 요양행성을 중심으로 쿠빌라이정권의 지주의 하나인 동방삼왕가(東方三王家)의 수반인 나얀(乃顔:내안:Наян)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이두(海都:해도:카이두:Хайду)는 타타르 인의 대지배자 중 한 명인데 30세의 젊은이로서 많은 지방을 지배했으며 쿠빌라이의 손자뻘이다. 하지만 욕심이 많은 그는 할 수 있으면 제국을 빼앗으려고 생각하여 타타르 황족의 사람인 하이두(海都:해도:카이두:Хайду)와 손잡고 군사를 준비하여 다른 방면으로 자기 전군을 이끌고 양쪽으로 공격하기로 계획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쿠빌라이 칸은 즉각 대응하였다. 준비는 신속하고도 비밀리 행해졌으며 추밀원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10일에서 12일 만에 완료했다. 이때 쿠빌라이 칸의 막대한 수의 군대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파견되어 있었다. 당시 원군으로 징병한 것은 기병 36만, 보병 10만이었다고 한다. 한편 반란 군수는 양군 합쳐서 76만을 훨씬 넘는 수였다. 이것은 기병의 수만이다. 전투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되었으며 결국은 쿠빌라이 칸의 승리로 끝났다.<sup>161)</sup> 이렇게 쿠빌라이 칸의 친정(親征)에 의해 반란은 일단 진압되어, 동방삼왕가(東方三王家)의 당주들은 모두 이동되었지만, 이 전후(戰後) 처리에 불만을 가진 카치운가(家)의 왕족 카다안이 봉기해 1290년대에는 카다안 일파가 고려 영토에 침입해, 몇 개의 성을

161) 마르코 폴로 지음 김기홍 옮김, 『동방견문록』, 마당미디어, 1995, 57-59쪽.

차지하고, 일부는 고려의 수도 개성보다 남쪽의 충주까지 침입했다. 카다안이 반란을 일으키자 쿠빌라이는 군사를 고려에 보내 고려군과 연합해서 반란군을 쉽게 패배시켰다.

이러한 반란들로 인해 쿠빌라이 칸은 일본원정을 생각할 틈도 없었다. 또한 나안(乃顔:내안:Наян)의 반란 때에는 서방의 하이두(海都:해도:카이두:Хай дуу)도 카라코룸을 목표로 해서 진격해, 1287년부터 1291년에 걸쳐, 원의 동부 전역에서 북부, 특히 고려 내외에서는 소란이 계속되었다.

또 당시, 몽골제국(蒙古諸國)의 제4대 황제 몽케칸(Мөнх хаан)의 시대에 복속되어 있던 베트남 북부의 진조대월국(陳朝大越國)에서도, 원에 따르는 베트남 남부의 참파왕국 침공을 위한 과도한 물자징발에 항의해 태상황·진성종(陳聖宗)이 중심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에 대해 쿠빌라이는, 군선 50척, 92,000명의 군사를 파견했다<sup>162)</sup>.

이러한 내란과 남방에서의 군사적인 실패 등도 있어서 쿠빌라이 칸의 일본침공계획은 당분간 부상되지 않았다. 쿠빌라이 칸은 나안(乃顔:내안:Наян)의 반란을 계기로 동남아시아·인도 양방면으로의 군사적 정책을 경제·통상을 중시한 화평노선으로 전환했다고 하며, 진조대월국(陳朝大越國)이나 참파왕국, 또 1290년대에 침공이 있었던 자바(신가사리조朝·마자파히트朝)에서도 복속관계의 수복이나 조공관계의 재체결의 사절이 교환되고 있다. 이들 전쟁을 제압한 후로 중국 연안부에서 동남아시아 방면으로의 상선의 왕래는 활발해져, 쿠빌라이 칸의 치세말기에는 남방에 대한 원의 군사적 위협은 해소되었다.

162) 『元史』卷209 列傳第96 外夷2 安南國 “二十四年正月，發新附軍千人從阿八赤討安南。又詔發江淮，江西，湖廣三省蒙古漢，券軍七萬人，船五百艘，雲南兵六千人，海外四州黎兵萬五千，海道運糧萬戶張文虎，費拱辰，陶大明運糧十七萬石，分道以進。”

## 2. 3차 일본원정 계획의 종언

몽골제국(蒙古諸國)의 제5대 대칸이자 대원(大元)의 초대 황제이며, 칭기즈 칸(Чингис хаан1162-1227)의 손자 쿠빌라이 칸(忽必烈:Хубилай хаан)은 1215년 9월 23일에 태어났다. 쿠빌라이 칸은 툴루이(Тулуй1190-1232)칸의 아들이자 몽케칸(Мөнх хаан1209-1259)의 동생이다.

1259년 몽골제국의 4대 대칸인 몽케칸이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1260년 5월 5일 몽케 칸의 뒤를 이어 쿠빌라이가 몽골제국의 제5대 대칸으로 즉위하였다.

쿠빌라이 칸은 즉위 직후 최우선 정책으로 남송 공략을 선택하여 1268년 한수의 요충 양양성(襄陽城)의 포위전을 개시했다. 이어서 고려를 통해 남송(南宋:Өмнөд Сүн улс)과 통상관계를 맺고 있었던 일본(日本:Япон)에도 몽골에 대한 복속을 요구했는데 일본이 이를 거부하자 쿠빌라이는 일본원정을 계획하게 되었다.

1271년 몽골제국의 국호를 대원(大元)으로 고치고 대도(大都)를 도읍으로 정하였다. 이어서 쿠빌라이는 1차 일본원정을 단행했다. 1차 일본원정이 벌어진 해인 1274년 당시 5년간에 걸친 양양성(襄陽城) 공략이 성공한 직후이자 바야흐로 원(元)나라가 남송의 본토에 본격적으로 침공해 1276년 수도 임안(臨安)을 함락시켰다. 그 후 해상으로 도망친 남송의 유민을 1279년 애산(한자) 전투에서 전멸시킴으로 중국을 통일하였다. 쿠빌라이는 남송을 함락시킴으로써 풍부한 옛 남송 지역의 부(富)를 대도로 모이게 하여 그 이윤을 국가에 흡수하였고, 각종 경제제도 정비를 통해, 화북을 중심으

로 했던 정권으로서는 유례없는 번영을 맞이했다.

한편 1276년 이후 다시 결집하여 저항하려는 여진족을 토벌하고, 만리장성 밖에 있던 거란족의 잔당을 궤멸, 몰살시켜 내몽골과 만주 지역을 평정하였다. 또한 일부 군사를 보내 위구르 족과 티베트를 정벌하였으며, 옛 서하(西夏) 지역의 부흥 운동 역시 좌절시켰다.

1279년 당시 중국대륙을 정복하고 금나라와 거란족의 잔당을 토벌하였으며, 고려를 제후국으로 편입시키고, 베트남 북방까지 영토를 확장시켰다.

따라서 쿠빌라이는 2차 일본원정을 준비해 1281년 다시 일본에 군대를 보냈으나 이번에도 실패로 끝났다. 쿠빌라이는 바로 3차 일본원정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베트남이 반란을 일으키자 쿠빌라이는 일본원정 부대에서 병력을 뽑아 1285년과 1288년에는 베트남에 보냈는데 아쉽게도 군대가 차례로 패배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북방 지역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 이전에는 1276년 중앙아시아에서 하이두(海都)와 대치하던 원나라 군대에서 몽케의 아들 시리기가 반란을 일으켜 하이두의 세력 확대를 초래하였다. 그런데도 쿠빌라이는 3번째 일본원정을 계획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원정을 추진하였다.

1287년 동쪽 3왕가가 나얀(乃顔:내안:Наян)을 지도자로 삼아 반기를 들었으며, 중국 내에서도 반란이 빈발했기 때문에 쿠빌라이는 일본 원정을 일단 포기했다.

또한 1292년 참파왕국에 군대를 파견했다. 참파왕국 공략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원정은 상업루트의 개척에 뜻을 둔 측면이 강해, 최종적으로는 해상루트의 안전이 확보되는 성과를 올리며 5년에 걸친 내란이 잠잠해졌다.

이렇게 1292년 말쑤 반란이 잠잠해지자 쿠빌라이는 다시 일본침공을 실행하려고 고려에 전함의 조선을 명했다. 따라서 3차 일본원정 계획이 다시 준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1294년 2월 18일 몽골제국의 제5대 대칸(1260-1294)이자 대원의 초대 황제 쿠빌라이 칸(忽必烈:Хубилай хаан)이 79세를 일기로 대도에서 병사하였다. 따라서 황제의 사망으로 전함의 건조도 중지되었다.

당시 고려왕이 입조해 일본 정벌의 불합리성을 설명했으며, 또한 1274년과 1281년 두 번에 걸친 원정으로 바닷가의 재목(材木)을 거의 벌목해 버려 전함의 건조가 사실상 곤란했으므로 기한이라도 연기하고자 했다. 그런데 마침 황제가 죽었으므로 홍군상(洪君祥)이 승상(丞相) 울제이(完澤)<sup>163</sup>에게 건의해 마침내 일본정벌이 중지되었던 것이다.<sup>164</sup>

쿠빌라이 칸이 세상을 떠난 것에 따라 여러 차례 추진되었던 일본원정계획은 차츰 힘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 원에서 일본침공계획은 부상되지 않아<sup>165</sup> 쿠빌라이 칸의 죽음으로 3차 일본원정 계획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163) 『元史』 卷130, 열전71, 울제이(完澤), 울제이(1246-1303) : 토별연(土別燕)씨로 조부 토설(土薛)은 칭기스칸을 섬겨 금나라 등을 정벌하는 데 공을 세웠다. 부친 면진(綿眞)은 세조를 섬겨 아릭부케의 토벌에 참가했고 중서우승상(中書右丞相)에 임명되었다. 울제이는 명문가의 자제로 쿠빌라이의 아들이자 태자였던 진킴(眞金)을 숙위했다. 이후 진킴을 각별한 총애를 받았으며 진킴이 사망한 후 뒷날의 성종인 테무르 칸을 섬겼다. 생계(桑哥)가 처단 된 후 중서우승상에 임명되었다가 쿠빌라이 칸이 사망하자 북방을 수비하고 있던 테무르 칸을 황제로 옹립했다. 대덕 7년에 사망했다. 흥원왕(興元王)이라 추봉하였으며 충헌(忠憲)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

164) 『高麗史』 충렬왕 20年, “罷造戰艦. 時王入朝, 欲陳東征不便, 且以甲戌·辛巳兩年之役, 濱水材木, 斫伐殆盡, 造艦實難, 冀緩其期. 會帝晏駕, 洪君祥白丞相完澤, 遂寢東征.”

165) 『元史』 卷208 列傳第95 外夷1 日本國“成宗大德二年, 江浙省平章政事也速答兒乞用兵日本. 帝曰, 今非其時, 朕徐思之.”

## V. 맺음말

몽골의 일본 침략은 몽골 고려 남송 일본을 포함한 대규모 국제적 전쟁이었던 점에서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몽골 측에서는 유라시아에 걸친 세계제국 건설의 일환이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나고 있었고 한국사의 입장에서는 원나라 간섭기에 고려가 겪은 고난의 역사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일본 측에서 몽골의 일본 침략은 전근대 일본이 전면적으로 외국의 침략을 받은 유일한 사건으로 일본사의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본인이 연구한 쿠빌라이 칸의 3차 일본원정 계획에 대한 연구는 아직 몽골과 한국에서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다.

본 논문에는 1차, 2차 일본원정 실패 이후에 추진된 제3차 일본원정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려고 노력했다.

2차 일본 원정 이후 쿠빌라이는 1282년, 1284-1285년, 1292-1294년에 걸쳐 3차 일본원정을 집요하게 기도했었지만 3차 일본원정의 원내부 각지의 반란, 베트남의 저항 및 몽골제국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계속 좌절되었던 것이었다.

또한 일본을 군사적으로 정복하려고 기도했었던 쿠빌라이 칸이 사망한 후에는 쿠빌라이 칸의 뒤를 이은 원나라의 제2대 황제 테무르(鐵穆耳:Төмөр хаан(1265-1307)에 대해 1298년에 일본을 정벌할 것을 청했지만, 테무르는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고 말해 신하의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로 1299년에는 일본에 국서를 보내 일본 초유를 시도하면서 일본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버리고 외교교섭 쪽에 보다 중점을 옮겨간 일이

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원에서 일본 침략을 준비한 흔적이 없었다.

3차 일본원정 계획 및 1차 2차 일본원정 때의 지휘 체계 및 군사력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1차 일본원정	2차 일본원정	3차 일본원정 계획																																													
지휘부	<table border="1"> <tr> <td>1</td> <td>일본정토 도원수</td> <td>헌두</td> </tr> <tr> <td>2</td> <td>동정부원 수</td> <td>홍다구 유복형</td> </tr> <tr> <td>3</td> <td>고려군 중군도 독사</td> <td>김방경</td> </tr> <tr> <td>4</td> <td>좌군사</td> <td>김신</td> </tr> <tr> <td>5</td> <td>우군사</td> <td>김문비</td> </tr> </table>	1	일본정토 도원수	헌두	2	동정부원 수	홍다구 유복형	3	고려군 중군도 독사	김방경	4	좌군사	김신	5	우군사	김문비	<table border="1"> <tr> <td>1</td> <td>중서우 승상</td> <td>아탐해 충렬왕</td> </tr> <tr> <td>2</td> <td>중서우 승</td> <td>훈도·홍 다구·범 문호</td> </tr> <tr> <td>3</td> <td>참지정 사</td> <td>이정·장 희</td> </tr> <tr> <td>4</td> <td>고려군 도원수</td> <td>김방경</td> </tr> <tr> <td>5</td> <td>좌우부 원수</td> <td>박구·김 주정</td> </tr> </table>	1	중서우 승상	아탐해 충렬왕	2	중서우 승	훈도·홍 다구·범 문호	3	참지정 사	이정·장 희	4	고려군 도원수	김방경	5	좌우부 원수	박구·김 주정	<table border="1"> <tr> <td>1</td> <td>중서우 승상</td> <td>아탐해 충렬왕</td> </tr> <tr> <td>2</td> <td>중서우 승</td> <td>범문호</td> </tr> <tr> <td>3</td> <td>참지정 사</td> <td></td> </tr> <tr> <td>4</td> <td>고려군 도원수</td> <td></td> </tr> <tr> <td>5</td> <td>좌우부 원수</td> <td></td> </tr> </table>	1	중서우 승상	아탐해 충렬왕	2	중서우 승	범문호	3	참지정 사		4	고려군 도원수		5	좌우부 원수	
1	일본정토 도원수	헌두																																														
2	동정부원 수	홍다구 유복형																																														
3	고려군 중군도 독사	김방경																																														
4	좌군사	김신																																														
5	우군사	김문비																																														
1	중서우 승상	아탐해 충렬왕																																														
2	중서우 승	훈도·홍 다구·범 문호																																														
3	참지정 사	이정·장 희																																														
4	고려군 도원수	김방경																																														
5	좌우부 원수	박구·김 주정																																														
1	중서우 승상	아탐해 충렬왕																																														
2	중서우 승	범문호																																														
3	참지정 사																																															
4	고려군 도원수																																															
5	좌우부 원수																																															
병력	<table border="1"> <tr> <td>1</td> <td>몽한군</td> <td>2만 5 천 명</td> </tr> <tr> <td>2</td> <td>고려군</td> <td>8천 명</td> </tr> <tr> <td>3</td> <td>고려수군</td> <td>6천 7 백 명</td> </tr> </table>	1	몽한군	2만 5 천 명	2	고려군	8천 명	3	고려수군	6천 7 백 명	<table border="1"> <tr> <td>1</td> <td>연합군</td> <td>4만 명</td> </tr> <tr> <td>2</td> <td>고려군</td> <td>정군 1만 명·수군 1 만 5천명</td> </tr> <tr> <td>3</td> <td>강남군</td> <td>10만 명</td> </tr> </table>	1	연합군	4만 명	2	고려군	정군 1만 명·수군 1 만 5천명	3	강남군	10만 명	<table border="1"> <tr> <td>1</td> <td>원군</td> <td>10만 명</td> </tr> <tr> <td>2</td> <td>고려군</td> <td>1만 명</td> </tr> </table>	1	원군	10만 명	2	고려군	1만 명																					
1	몽한군	2만 5 천 명																																														
2	고려군	8천 명																																														
3	고려수군	6천 7 백 명																																														
1	연합군	4만 명																																														
2	고려군	정군 1만 명·수군 1 만 5천명																																														
3	강남군	10만 명																																														
1	원군	10만 명																																														
2	고려군	1만 명																																														
병선	전함 9백 척	강남군 전함-3천 5백 척 고려군 전함-9백 척	전함-3천 척																																													
특징	실제로 이뤄졌음	실제로 이뤄졌음	2차 일본 원정 이후 쿠빌라이는 1282년, 1284-1285년, 1292- 1294년에 걸쳐 3차 일본원정을 집요하게 기도했었다. 위의 표 안의 내용은 1282-1285년 준비과정에 해당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차 일본원정 계획군은 2차 일본원정대와 거의 비슷한 대규모 군대였다.

또한 3차 원정에 준비하여 합포에 설치한 진변만호부는 후에 방어의 중심으로 계속 있었다. 마지막으로 원내부가 잠잠해지자 1292년에 재차 일본원정을 다시 고려하게 된 쿠빌라이 칸은 1292년 당시 고려로 하여금 전함을 만들어 1차 원정 출발지인 합포에서 출발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당시 잇달은 조선에 의해 이미 고려에서는 목재가 바닥나 있어 조선을 준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때문에 조선을 준비하지 못 하게 되자 충렬왕은 전함 건조를 미루거나 연기를 건의할 목적으로 원으로 갔는데 마침 쿠빌라이 칸이 사거한 것에 따라 고려에서는 조선을 중지하고 여러 차례 벌어진 일본원정 계획은 차츰 중지된 것이다.

한편 충렬왕은 원 공주와 결혼하고 즉위함으로써 충렬왕은 쿠빌라이 칸의 부마로서 그의 권력은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충렬왕은 원의 일본원정에 앞장섬으로써 자신의 권력은 더 강화되었다. 하지만 2차 일본 원정이 실패로 끝나버렸다. 그런데 원정이 실패로 끝나고 3차 일본원정 계획도 이뤄지지 못 하고 있음에도 충렬왕에 대한 책임이나 문책은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일본원정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던 고려의 충렬왕 자세가 고려왕실의 지위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일본원정 이후 충렬왕의 강화된 왕권 행사를 잘 보여 주는 것은 만호라는 원의 무관직이었다.

또한 2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공을 받았던 일본은 3차 일본침공에 대비하여 이국경비번역(異國警固番役)과 방루(石築地) 축조, 이국 항복을 위한 기도, 사사(寺社)에 대한 덕정정책(德政政策)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결국 3차 일본원정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이국경비번역과 방루 축조는 14세기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쿠빌라이 칸의 3차 일본원정은 계획대로 역사 속에서 막을 내린 것이다.

## 참고문헌

### 사료

『元史』

『高麗史』

『高麗史節要』

『鎌倉遺文』

### 단행본

#### 몽골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дэд боть. УБ., 2003

Н. Ишжамц,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ний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ХШ-ХIV),  
УБ, ШУА, 1995.

Ч. Далай , Юан гүрний үеий н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 н зарим асууда  
л, УБ, ШУА, 1973.

Ч. Далай , Монголын түүх, УБ, Эрдэм, 1992.

Ш.Бира. Их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үзэл суртлын зарим онцлог асуу  
длууд. УБ., 2006.

А.Пунсаг, Ж.Ганболд, Д. Мөнхцэцэг. Монголын Юань улс. УБ.,  
2006.

#### 한국

- 『역사 속의 한일관계』 , 동북아역사재단, 2009.
- 마르코 폴로 지음 김기홍 옮김, 『동방견문록』 , 마당미디어, 1995.
- 마르코폴로 지, 김호동 역주, 『동방견문록』 , 2000.
- 박용운, 『고려시대사』 , 서진인쇄사, 2012.
- 박종기, 『5백년 고려사』 , 푸른역사, 2004.
- 박한제, 김형중, 김병준, 이근명, 이준갑, 『아틀라스 중국사』 , 세계철출판사, 2009.
- 배진영, 『마르코 폴로의 길을 걷다 동방견문록』 , 서해문집, 2011.
- 백지원, 『백지원의 완간 고려왕조실록 하권』 , 진명출판사, 2010.
- 보르지기다이 에르데니 바타르, 『팍스몽골리카와 고려』 , 혜안, 2009.
- 오타기 마쓰오, 『대원제국』 , 혜안, 2013.
- 요시노 마코트, 『동아시아 속의 한일2천년사』 , 책과함께, 2005.
- 윤은숙, 『몽골제국의 만주 지배사』 , 소나무 , 2010.
- 이상각, 『열정과 자존의 오백년 고려사』 , 들녘, 2010.
- 이승한, 『쿠빌라이칸의 일본 원정과 충렬왕』 , 푸른역사 , 2009.
- 정인지 외, 『신편 고려사3』 , 신서원, 2008.
- 최용범, 『하룻밤에 읽는 고려사』 , 랜덤하우코리아, 2011.
- 한국인물사연구원, 『이야기 고려왕조실록 下』 , 타오름, 2009.
-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몽골의 고려·일본 침공과 한일관계』 , 경인문화사, 2009.

## 중국

- 烏云高娃, 「元世祖忽必烈兩次征日本及高麗的態度」 , 『역사와 세계』  
Vol.- No.36, 2009.
- 薛磊, 「忽必烈時期元日關係中,高麗王朝的態度」 , 『內蒙古大學學報』 , 2002

年.

王金林, 「元朝忽必烈兩次東征日本及其失敗原因」, 『東北亞學刊』, 2012年.

## 일본

福岡縣, 『福岡縣史』 第一卷下冊 1962年

川添昭二, 『元寇防壘編年史料—注解異國警固番役史料の研究』, 福岡市教育委員會, 1971.

杉山正明, 『クビライの挑戦 モンゴル海上王國への道』, 朝日新聞社, 1995.

池内宏, 『元寇の新研究』, 東洋文庫, 1931.

森克己, 『日宋貿易の研究』, 國立書院, 1948.

森克己, 『新訂 日宋貿易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池内宏, 『元寇の新研究』, 東洋文庫, 1931.

旗田巍, 『元寇 蒙古帝國の内部事情』, 中央公論社, 1965.

海津一郎, 『中世の变革と徳政』, 吉川弘文館, 1994.

海津一郎, 『蒙古襲來』, 吉川弘文館, 1998.

關幸彦, 『神風の武士像』, 吉川弘文館, 2001.

## 학술지 논문

### 한국

고명수, 「쿠빌라이 정부의 交通·通商 진흥 정책에 관한 연구 - 소위 ‘팍스 몽골리카 (Pax Mongolica)의 성립조건 형성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9.

고병익, 「麗代 征東行省의 研究(上)」, 역사학보, 1961.

고병익, 「麗代 征東行省의 研究(下)」, 역사학보, 1962.

- 관영미, 「충렬왕대 초의 여몽관계와 정치상황 운영」,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김은경, 「13세기 서양에서 바라본 몽골 제국의 역사」, 이탈리아어문학 제19집, 2006.
- 김철민, 「원의 일본원정(日本遠征)과 여(麗)·원(元)관계(關係)」, 『건대사학 3』, 건국대학교 사학과, 1973.
- 김호동, 「고려는 왜 원의 부마국이 되었을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2005.
- 남기학, 「몽고의 일본 侵略과 일본의 對應-고려와 일본의 관계에 유의하여-」, 『몽골의 고려·일본 침공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9.
- 남기학, 「몽골의 일본 침략 -연구사적 고찰과 교과서 비판」, 한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Vol.19 No.-, 2011.
- 남기학, 「중세 고려, 일본 관계의 쟁점 -몽골의 일본 침략과 왜구-」, 『日本歴史研究』 Vol.17 No.-, 일본사학회, 2003
- 박형표, 「여몽연합군의 동정과 그 전말」, 『사학연구』 21, 1969.
- 사이키 코지, 「일본침공 이후의 麗日關係」, 동북아역사재단, 2008,
- 윤용혁, 「여원군의 일본침입을 둘러싼 몇 문제 -1274년 1차 침입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2005.
- 이개석, 「大蒙古國-高麗 關係 연구의 재검토」, 경북대학교, 2007.
- 이개석, 「원조의 남송병합과 강남지배의 의의」, 복현사림, Vol.21 No.1, 1998.
- 이영, 「여몽 연합군의 일본침공과 여일관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 논문, 1998.
- 이은규, 「원(元)의 일본정벌(日本征伐) 고찰(考察), -고려(高麗)와 원(元)의 국제관계(國際關係)를 중심(中心)으로-」, 『호서사학(湖西史學)』 1, 1972.

- 이익주, 「14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려-원·명-일본 관계」, 진단학보 Vol.- No.114, 2012.
- 이재범, 「여몽연합군의 일본정벌과 『동방견문록』」, 『군사』 50, 2003.
- 이재범, 「여원연합군의 일본원정 경로에 대한 고찰」, 국사연구 제127집, 2009.
- 이정신, 「원 간섭기 원종·충렬왕의 정치적 행적 -김방경의 삼별초 정벌, 일본원정을 중심으로 -」, 『한국인문사연구』 제10호, 2008
- 이흥식, 「여몽연합군의 동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58.
- 장동익, 「征東行省의 研究」, 동방학지, 1990.
- 조영휘, 「雙城摠管府와永寧公 王綽」, 중앙문화사, 2004.
- 주채혁, 「쿠빌라이칸의 중앙집권화에 대한 카단宗王軍의 항전과 고려 鶴原山城 討伐戰」,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 황시감, 「송·고려·몽고관계사에 관한 일고찰」, 동방학지 95, 1997.

## 중국

- 姜婷, 「忽必烈時期(蒙)元与高麗關係研究」, 陝西師範大學, 2011年.
- 郭輝, 「忽必烈征伐日本」, 当代軍事文摘, 2005年.
- 馬偉, 「試論13世紀后期忽必烈對麗、日政策及其反應」, 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 2005年.
- 黃飛, 「元朝忽必烈 對日本的戰爭」 河北理工大學學報, 2010年 .

## 일본

- 青山公亮, 「日麗交渉史の研究」, 『明治大學文學部研究報告』, 1955.
- 川添昭二, 「鎌倉時代の對外關係と文物の移入」, 『岩波講座日本歴史』 6, 中

世2, 1975.

五味文彦, 「執事・執權・得宗」, 石井進編 『中世の人と政治』, 吉川弘文館, 1988.

榎本涉, 「初期日元貿易と人的交流」, 『宋代史研究會研究報告』8, 汲古書院, 2006.

